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이 성 룰 교수 지도

석사학위 청구논문

슈만의 가곡집 《미르텐》(Myrten,  
Op.25) 작품 연구

- 뢰케르트와 하이네의 시를 중심으로 -

2016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반주학과

김 이 슬

슈만의 가곡집 《미르텐》(Myrten,  
Op.25) 작품 연구

- 뢰케르트와 하이네의 시를 중심으로 -

이 성 룰 교수 지도

이 논문을 석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6년 5월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반주학과

김 이 슬

# 인 준 서

김이슬의 석사학위 논문으로 인준함

2016년 5월

심사위원장 \_\_\_\_\_ 인

심사위원 \_\_\_\_\_ 인

심사위원 \_\_\_\_\_ 인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 논문개요

본 논문은 로베르트 슈만(Robert Schumann, 1810~1856)의 가곡집 《미르텐》(Myrten, Op.25)의 작품 중 프리드리히 뤼케르트(Friedrich Rückert, 1788~1866)와 하인리히 하이네(Heinrich Heine, 1797~1856)의 시를 중심으로 슈만이 문학과 음악의 결합을 가곡에서 어떻게 표현했는지 분석 연구한 것이다.

1840년에 슈만은 총 9명의 시인의 시를 발췌하여 총 26곡의 가곡집 《미르텐》을 작곡하였고, 결혼하기 전날 밤 사랑하는 연인 클라라 슈만(Clara Josephine Schumann, 1819~1896)에게 선물로 주었다.

슈만은 클라라에게 헌정하는 가곡집 《미르텐》의 첫 곡과 마지막 곡의 가사를 뤼케르트가 아내에게 선물한 시집 「사랑의 봄」(Liebesfrühling)에서 발췌한 시를 사용하였는데, 이는 슈만과 로맨티스트적인 면모가 닮아있고, 시적·문학적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하이네는 사랑의 실연으로 인한 감정을 문학작품에 쏟아냈는데, 그의 시에서 나타나는 이중적인 면모에 슈만은 깊은 공감을 했고, 슈만이 가곡 작곡에 있어서 가장 많이 발췌했던 시의 시인 중 한명이다.

본 논문에서는 먼저 슈만과 뤼케르트와 하이네의 생애와 작품을 연구했다. 이어 슈만의 가곡집 《미르텐》의 작곡 배경과 구성을 알아보고, 시인에 대해서 조사했다. 뤼케르트와 하이네의 시와 각 곡의 구조와 조성 및 시어에 따른 선율과 화성, 리듬 그리고 피아노 반주의 역할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본 논문에서 연구한 슈만의 가곡집 《미르텐》 중 8곡에서는 시의 각 행을 일정한 마디 수로 노래하지 않고, 시절의 의미와 감정에 따라 마디 수를

줄이거나 확대하여 노래하였다. 그는 시를 독일 언어에서 나타나는 언어의 운율(Ur melody)을 살려서 작곡했고, 시어나 시절의 의미와 그에 따른 감정을 조성곡 화성 및 선율의 리듬을 통해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여 적극적으로 표현했다. 피아노 반주에서는 성악 선율의 단순한 보조적인 역할이 아니라 다양한 화성의 진행과 화음연타, 아치형 분산화음, 호모포니적 반주 유형 등을 사용하여 시의 분위기를 나타낸다.

슈만의 가곡집 《미르텐》에서 나타나는 문학과 음악이 하나가 되는 아이디어는 음악사적으로 큰 의미가 있고, 독일 낭만주의 가곡 발전에 큰 영향을 주었다.

# 목 차

## 논문개요

I. 서론 .....	1
II. 본론 .....	5
1. 로베르트 슈만의 생애와 문학적성 .....	5
1) 생애 .....	5
2) 슈만의 가곡에 나타난 문학적성 .....	8
2. 프리드리히 뢰케르트의 생애와 작품 .....	12
1) 생애 .....	12
2) 작품 .....	14
3. 하인리히 하이네의 생애와 작품 .....	16
1) 생애 .....	16
2) 작품 .....	19
4. 가곡집 《미르텐》 .....	23
1) 작품 개요 .....	23
2) 구성 .....	24
3) 시인 .....	25
5. 작품 분석 .....	27
1) 제1곡 ‘헌정’ (Widmung) .....	27
2) 제7곡 ‘연꽃’ (Die Lotosblume) .....	40
3) 제11곡 ‘신부의 노래 I’ (Lied der Braut I) .....	49
4) 제12곡 ‘신부의 노래 II’ (Lied der Braut II) .....	59
5) 제21곡 ‘고독한 눈물은 무엇인가’ (Was will die einsame Träne) .....	65

6) 제24곡 ‘그대는 한 송이 꽃과 같네’ (Du bist wie eine Blume) …	73
7) 제25곡 ‘동쪽의 장미로부터’ (Aus den östlichen Rosen) ……	81
8) 제26곡 ‘끝맺음’ (Zum Schluss) ……………	89

V. 결론 ……………	95
-------------	----

참고문헌

ABSTRACT

## 표 목 차

<표 1> 슈만의 가곡집 .....	8
<표 2> 뤼케르트에 의한 슈만 가곡(작품번호 순서) .....	15
<표 3> 하이네의 대표적인 정치적 성향의 작품 .....	20
<표 4> 「노래의 책」의 집필년도 .....	21
<표 5> 하이네 시에 의한 슈만 가곡(작품번호 순서) .....	22
<표 6> 가곡집 《미르텐》의 구성 .....	24
<표 7> 제1곡 ‘헌정’의 시와 음악의 구조 .....	29
<표 8> 제1곡 ‘헌정’의 악곡 구성 .....	30
<표 9> 제7곡 ‘연꽃’의 시와 음악의 구조 .....	41
<표 10> 제7곡 ‘연꽃’의 악곡 구성 .....	42
<표 11> 제11곡 ‘신부의 노래 I’의 시와 음악의 구조 .....	50
<표 12> 제11곡 ‘신부의 노래 I’의 악곡 구성 .....	51
<표 13> 제12곡 ‘신부의 노래 II’의 시와 음악의 구조 .....	60
<표 14> 제12곡 ‘신부의 노래 II’의 악곡 구성 .....	61
<표 15> 제21곡 ‘고독한 눈물은 무엇인가’의 시와 음악의 구조 .....	66
<표 16> 제21곡 ‘고독한 눈물은 무엇인가’의 악곡 구성 .....	67
<표 17> 제24곡 ‘그대는 한 송이 꽃과 같네’의 시와 음악의 구조 .....	74
<표 18> 제24곡 ‘그대는 한 송이 꽃과 같네’의 악곡 구성 .....	75
<표 19> 제25곡 ‘동쪽의 장미로부터’의 시와 음악의 구조 .....	82
<표 20> 제25곡 ‘동쪽의 장미로부터’의 악곡 구성 .....	83
<표 21> 제26곡 ‘끝맺음’의 시와 음악의 구조 .....	90
<표 22> 제26곡 ‘끝맺음’의 악곡 구성 .....	91

## 악보 목차

<악보 1> 제1곡 ‘헌정’ 마디 1-13 .....	32
<악보 2> 제1곡 ‘헌정’ 마디 13-21 .....	34
<악보 3> 제1곡 ‘헌정’ 마디 13-29 .....	36
<악보 4> 제1곡 ‘헌정’ 마디 30-39 .....	38
<악보 5> 제1곡 ‘헌정’ 마디 39-44 .....	39
<악보 6> 슈베르트의 ‘아베 마리아 D. 839’ 마디 3-4 .....	39
<악보 7> 제7곡 ‘연꽃’ 마디 1-9 .....	44
<악보 8> 제7곡 ‘연꽃’ 마디 9-17 .....	46
<악보 9> 제7곡 ‘연꽃’ 마디 17-27 .....	48
<악보 10> 제11곡 ‘신부의 노래 I’ 마디 1-14 .....	53
<악보 11> 제11곡 ‘신부의 노래 I’ 마디 15-26 .....	55
<악보 12> 제11곡 ‘신부의 노래 I’ 마디 27-41 .....	57
<악보 13> 제11곡 ‘신부의 노래 I’ 마디 41-49 .....	58
<악보 14> 제12곡 ‘신부의 노래 II’ 마디 1-21 .....	62
<악보 15> 제12곡 ‘신부의 노래 II’ 마디 21-36 .....	64
<악보 16> 제21곡 ‘고독한 눈물은 무엇인가’ 마디 1-9 .....	68
<악보 17> 제21곡 ‘고독한 눈물은 무엇인가’ 마디 9-17 .....	69
<악보 18> 제21곡 ‘고독한 눈물은 무엇인가’ 마디 17-25 .....	70
<악보 19> 제21곡 ‘고독한 눈물은 무엇인가’ 마디 25-33 .....	71
<악보 20> 제21곡 ‘고독한 눈물은 무엇인가’ 마디 33-38 .....	72
<악보 21> 제24곡 ‘그대는 한 송이 꽃과 같네’ 마디 1-9 .....	77
<악보 22> 제24곡 ‘그대는 한 송이 꽃과 같네’ 마디 9-17 .....	79
<악보 23> 제24곡 ‘그대는 한 송이 꽃과 같네’ 마디 17-20 .....	80

<악보 24> 제25곡	‘동쪽의 장미로부터’	마디 1-17	.....	85
<악보 25> 제25곡	‘동쪽의 장미로부터’	마디 17-36	.....	87
<악보 26> 제25곡	‘동쪽의 장미로부터’	마디 36-39	.....	88
<악보 27> 제26곡	‘끝맺음’	마디 1-8	.....	92
<악보 28> 제26곡	‘끝맺음’	마디 9-16	.....	93
<악보 29> 제26곡	‘끝맺음’	마디 17-21	.....	94

## I. 서론

### 1.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19세기 낭만주의 대표적인 작곡가인 슈만(Robert Schumann, 1810~1856)은 가곡 분야에 있어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작곡가이다. 슈만은 시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가곡을 작곡하여 서정적인 표현이 피아노 작품보다 가곡에서 더 많이 나타난다.<sup>1)</sup>

슈만은 연인인 클라라(Clara Josephine Schumann, 1819~1896)와 결혼하는 해인 1840년 한 해 동안 수많은 가곡들을 작곡하였는데, 대표적인 작품으로는 연가곡 《리더크라이스》(*Liederkreis*, Op.24, 39), 《여인의 사랑과 생애》(*Frauenliebe und Leben*, Op.42), 《시인의 사랑》(*Dichterliebe*, Op.48) 그리고 가곡집 《미르텐》(*Myrten*, Op.25)이 있다. 이 해를 “가곡의 해”라고 한다.<sup>2)</sup>

가곡집 《미르텐》은 슈만의 가곡 연구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 초기 가곡으로서 이후 슈만 가곡의 발전을 예상할 수 있고, 연가곡처럼 한 시인의 작품으로 작곡한 것이 아니라 여러 명의 시인의 작품을 발췌하여 다양한 구성으로 작곡했기 때문이다. 슈만이 결혼식 전날 밤 미르텐에 싸여진 가곡집을 클라라에게 선물한 만큼 그들의 사랑 이야기가 가장 직접적으로 표현된 작품이기 때문에 슈만의 문학적 소양과 음악적 감성을 잘 알 수 있다.<sup>3)</sup>

슈만의 가곡은 현재까지도 많이 연주되고 학문적 연구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연가곡의 연구가 활발하다. 슈만의 가곡집 《미르텐》은 연가곡만큼이나 연주가 활발하지만, 학문적인 연구는 매우 미흡하

---

1) 이경숙, 『예술가곡의 이해』 (서울: 도서출판 선우미디어, 2003), 28.

2) 진희숙(편), 『음악사를 움직인 100인』 (과주: 청아출판사, 2013), 297.

3) 음악지우사(편), 『작곡가별 명곡해설 라이브러리 슈만』 (서울: 음악세계, 2003), 296.

다. 본 논문은 가곡집 《미르텐》을 연주하는 성악가뿐만 아니라 반주자에게 학문과 연주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하는데 의의가 있다.

##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본 논문에서는 가곡집 《미르텐》 중에서 뤼케르트(Friedrich Rückert, 1788~1866)와 하이네(Heinrich Heine, 1797~1856)의 시를 발췌한 8곡을 연구한다. 슈만은 다른 작곡가들에 비해 뤼케르트의 작품을 가장 많이 발췌하여 가곡 작곡에 사용하였으며, 하이네의 작품은 슈만이 가곡 작곡에 가장 즐겨 사용하였다.

가곡집 《미르텐》 중 뤼케르트의 시를 발췌하여 작곡한 곡은 모두 5곡으로 제 1곡 ‘헌정’ (*Widmung*), 제 11곡 ‘신부의 노래 I’ (*Lied der Braut I*), 제 12곡 ‘신부의 노래 II’ (*Lied der Braut II*), 제 25곡 ‘동쪽의 장미로부터’ (*Aus den östlichen Rosen*), 제 26곡 ‘끝맺음’ (*Zum Schluss*)이다. 하이네의 시를 발췌하여 작곡한 곡은 모두 3곡으로 제 7곡 ‘연꽃’ (*Die Lotosblume*), 제 21곡 ‘고독한 눈물은 무엇을 원하는가’ (*Was will die einsame Träne*), 제 24곡 ‘그대는 한 송이 꽃과 같네’ (*Du bist wie eine Blume*)이다.

첫 번째 곡인 제 1곡 ‘헌정’ (*Widmung*)과 마지막 곡인 제 26곡 ‘끝맺음’ (*Zum Schluss*)이 서로 대응관계이기 때문에 본 논문에서 연구할 8곡에 부여된 번호의 순서대로 나열하여 작품을 연구한다.

작품의 깊은 이해를 위해 먼저 슈만과 뤼케르트와 하이네의 생애와 작품을 알아본다. 슈만의 가곡집 《미르텐》의 작곡 배경과 구성을 연구하고, 가곡집 《미르텐》에서 슈만이 발췌한 시의 시인에 대해서 조사한다. 이어 슈

만이 문학과 음악의 결합을 작품에서 어떻게 표현했는지 알아보기 위해 가사와 곡의 구조 및 조성을 알아본다. 시어의 표현을 선율과 화성, 리듬, 피아노 반주에서 어떻게 표현하는지 연구한다.

### 3. 선행 연구 고찰

가곡집 《미르텐》은 현재까지도 많은 연주를 하고 사랑받고 있는 슈만의 대표적인 작품 중 하나이다. 하지만 가곡집 《미르텐》의 연구 자료는 매우 미흡하기 때문에 본 논문의 연구는 매우 의미가 있다.

국외의 연구로는 에릭 샘(Eric Sams)의 저서<sup>4)</sup> 등 연구가 활발하지만, 국내의 연구로는 형진미(1985)<sup>5)</sup>와 김창숙(1991)<sup>6)</sup>, 이한나(2015)<sup>7)</sup>의 논문과 지형주(2006)<sup>8)</sup>의 학술 논문이 유일하다.

형진미의 논문은 시의 운율과 악센트에 대해 연구하여 독일어의 운율과 체계가 선율에서 나타나는 특징을 제공한다. 이한나의 논문은 《미르텐》 중에서도 하이네 시를 중심으로 시와 음악의 밀접한 관계를 연구하여 연주자의 이해를 돕는다. 지형주의 학술 논문은 《미르텐》 중에서 6곡을 발췌하여 슈만의 내면세계 표출을 연구하고, 그의 낭만성에 대한 깊은 이해를 제공한다.

---

4) Eric Sams, "The Song of Robert Schumann," (London; Boston: faber and faber, 1993).

5) 형진미, "슈만 가곡집 《미르테의 꽃》 연구 : 시의 운율과 음악적 악센트를 中心으로," (서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1985).

6) 김창숙, "Schumann의 Myrten(op.25)中 Burns의 詩에 붙인 歌曲에서 詩와 音樂과의 關係分析 研究," (경남대학교, 1991).

7) 이한나, "슈만 《미르테의 꽃(Myrten) Op.25》중 하이네의 시에 의한 예술가곡에 나타난 낭만주의적 기법 고찰," (단국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15).

8) 지형주, "구월의 신부를 위한 노래 <미르텐 Myrten>에 담겨있는 슈만의 낭만성," 음악이론연구 제 11호(2006), 21-39.

#### 4. 연구의 기대효과

슈만의 수많은 가곡들 중에서도 《미르텐》은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작품이지만, 이에 관한 연구는 부족하다. 본 논문에서 슈만이 생각했던 문학과 음악의 결합을 《미르텐》 중 8곡을 통해 노래와 피아노에서 어떻게 하나가 되어 표현하는지 연구하여, 성악가와 반주자가 연주할 때 좋은 앙상블이 되도록 할 것이다. 본 연구를 통해 슈만의 가곡집 《미르텐》의 학문적 연구가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

## II. 본론

### 1. 로베르트 슈만의 생애와 문학적성

#### 1) 생애

19세기 대표적인 낭만주의 작곡가 슈만은 독일 작센 주의 작은 마을인 츠비카우에서 태어났다. 그의 아버지는 출판업자이자 번역가였고, 그의 어머니는 외과의사의 딸로 음악적인 교양이 깊었다.<sup>9)</sup>

슈만은 1816년 이전에는 특별한 재능을 보이지 않았으나, 같은 해 성 마리아 교회의 오르간 연주자인 쿤취(J. G. Kuntzsch, 1775~1855)에게 처음으로 피아노 레슨을 배우면서, 무한대의 음악적인 능력을 발휘하기 시작했다. 13세 무렵에는 아버지의 영향으로 쉴러(Friedrich von Schiller, 1759~1805), 괴테(Johann Wolfgang von Goethe, 1749~1832), 바이런(Lord Byron, 1788~1824), 장 파울(Jean Paul, 1763~1825), 호프만(Ernst Hoffman, 1776~1822) 등 위대한 문학가들의 작품과 그리스 비극을 읽으며 문학적 감수성을 키웠고, 「음악 미학에 관하여」라는 에세이를 써서 아버지가 간행하는 잡지에 발표하기도 했다. 슈만은 1828년에 김나지움을 졸업했고, 졸업 후 잠시 여행을 떠났는데, 뮌헨에서 시인 하이네를 만나 깊은 교감을 나누었다.<sup>10)</sup>

슈만은 그의 어머니와 그의 아버지의 유산을 관리하는 후견인의 권유로 라이프치히(Leipzig) 대학의 법학과에 입학했지만, 문학과 슈베르트(Franz Schubert, 1797~1828)의 음악에 열중했다. 이후 「음(音)예술의 순수성

---

9) 음악지우사(편), 『작곡가별 명곡해설 라이브러리 슈만』, 10.

10) 진희숙(편), 『음악사를 움직인 100인』, 295.

에 대하여」라는 책의 저자인 법학교수 안톤 티보(Anton Thibaut, 1772~1840)가 있는 하이델베르크 대학으로 옮겼다. 안톤 티보 교수의 집에서는 종종 음악회가 열려 음악을 가까이 접할 기회가 많았다.<sup>11)</sup>

피아니스트가 되겠다는 강렬한 열망을 가지고 있었던 슈만은 자신의 진로를 음악으로 결심했고, 1830년 라이프치히로 돌아와 당대 최고의 피아노교수였던 프리드리히 비크(Friedrich Wieck, 1785~1873)의 가르침을 받았으며, 동시에 라이프치히 왕립극장의 지휘자인 도른(Heinrich Dorn, 1804~1844)에게서 푸가와 대위법을 배웠다.<sup>12)</sup> 프랑크푸르트에서 파가니니(Nicoló Paganini, 1782~1840)의 연주를 들은 슈만은 깊은 감동을 받았다. 건반위의 파가니니가 되고자 맹연습을 했고, 마음이 급했던 탓인지 손가락의 힘을 기르기 위해 스스로 고안해 낸 기계장치로 훈련을 하다가 손가락을 다치게 되었다. 이 일로 슈만은 피아니스트의 꿈을 접고 작곡에 전념하게 되었다.<sup>13)</sup>

1834년 슈만은 「음악신보」(Neue Zeitschrift für Musik)를 발간하여 음악평을 실는가 하면 쇼팽(Fryderyk Franciszek Chopin, 1810~1849), 멘델스존(Felix Mendelssohn-Bartholdy, 1809~1847), 브람스(Johannes Brahms, 1833~1897), 베를리오즈(Louis Hector Berlioz, 1803~1869)를 세상에 알리는데 큰 기여를 했다.<sup>14)</sup>

1836년 슈만은 비크 교수의 딸이자 당시 천재 피아니스트로 이름을 날리던 클라라와 사랑에 빠졌다. 당시 클라라의 나이는 17살이었다.<sup>15)</sup> 클라라의 아버지는 예술에 몰두하고 있던 슈만과 같은 낭만적인 몽상가가 클라라를 책임질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두 사람의 교제를 인정하지 않았다.

---

11) 문학수, 『더 클래식 둘. 슈베르트에서 브람스까지』 (과주: 돌베개, 2015), 132.

12) 홍세원, 『낭만파 음악』 (서울: 연세대학교, 2010), 142.

13) 진희숙(편), 『음악사를 움직인 100인』, 296.

14) 홍세원, 『낭만파 음악』, 143.

15) 진희숙(편), 『음악사를 움직인 100인』, 297.

슈만은 클라라와 교제하는 동안 희망과 불안감이 늘 공존하였다.<sup>16)</sup> 1839년 9월에 슈만은 클라라와의 결혼을 위해 비크에게 소송을 제기했고, 이 소송에서 이기면서 1840년 클라라와 결혼식을 올렸다. 이 행복한 결혼은 슈만에게 창작열에 불을 지폈고, 한 해 동안 수많은 가곡이 쏟아져 나왔다. 이때에 슈만의 대표적인 가곡집 《미르텐》을 비롯해 연가곡집인 《시인의 사랑》과 《여인의 사랑과 생애》, 《리더크라이스》(Op.24, 39) 등을 작곡했다. 이 해를 이른바 “가곡의 해”라고 한다. 이 후 해마다 장르를 전환하여 1841년엔 교향곡을, 1842년엔 실내악을 작곡했다.<sup>17)</sup>

1843년 슈만은 멘델스존이 설립한 라이프치히 음악원의 교수로 잠시 재직하였고, 이듬해 우울증이 심해져 10년 동안 해오던 「음악신보」 일을 그만두었으며, 정신적 고통으로 창작력도 급속히 쇠퇴했다. 1845년부터 1850년 사이에는 건강이 좀 회복되어 창작활동도 하고 여러 도시에서 지휘자로서 일을 했으나, 1854년부터는 본격적으로 환청이 들리고 환상 또한 보이기 시작하여 슈만 자기 자신이 클라라를 해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휩싸여 불안한 나날들을 보냈다.<sup>18)</sup>

그 해 2월 27일에 슈만은 스스로 라인 강에 몸을 던져 자살을 기도했는데, 다행히 어부가 그를 구했고, 그 일이 있은 후 본 교외에 있는 엔데니히 정신병원에 입원했다. 그렇게 2년을 보내다가 클라라를 마지막으로 면회하고 이틀 후인 1856년 7월 29일, 46세의 일기로 세상을 떠났다.<sup>19)</sup> 그 유해는 본의 묘지에 묻혔고, 후에 아내 클라라도 그 곳에 묻혔다.<sup>20)</sup>

16) Henry T. Finck, 『歌曲의 歷史와 作曲家』(Songs and Song-Writers), 대학음악저작연구회 번역 (서울: 삼호출판사, 1990), 94~95.

17) 진희숙(편), 『음악사를 움직인 100인』, 297.

18) 진희숙(편), 위의 책, 298.

19) 진희숙(편), 위의 책, 298~299.

20) 음악지우사(편), 『작곡가별 명곡해설 라이브러리 슈만』, 18.

## 2) 슈만의 가곡에 나타난 문학성

슈만의 수많은 가곡 작품을 보면 그가 많은 문학을 섭렵하고 있었는지 알 수 있다. 그 중에서도 그는 사랑하는 연인 클라라와 결혼하던 해인 1840년 한 해 동안 140여곡에 달하는 가곡을 작곡했는데, 그 수는 그의 총 가곡 작품수의 절반 이상을 넘긴 수량이다.<sup>21)</sup> 다음은 슈만의 가곡집을 작품 번호 순서로 도표 한 것이다(표 1).

<표 1> 슈만의 가곡집

Opus	년도	작 품 명	곡수	시 인	
24	1840	Liederkreis	9	Heine	
25		Myrten		26	Rückert/Goethe/Mosen
					Burns/Willemer/Heine
					Byron/Fanshawe/Moore
27		Lieder une Gesänge (Heft I)	5	Hebbel/Burns/Chamisso Rückert/Zimmermann	
30		3 Gedichte	3	Geibel	
31		3 Gesänge	3	Chamisso	
35		12 Gedichte	12	Kerner	
36		6 Gedichte	6	Reinick	
37		12 Gedichte aus Liebesfrühling	12	Rückert	
39		Liederkreis	12	Eichendorff	
40		5 Lieder	5	Andersen	
42		Frauenliebe und Leben	8	Chamisso	
45		Romanzen und Balladen I	3	Eichendorff/Heine	
48		Dichterliebe	16	Heine	
49	Romanzen und Balladen II	3	Heine/Fröhlich		
51	1842	Lieder und Gesänge (Heft II)	5	Geibel/Rückert Christern/Immermann Goethe	

21) Carol Kimball, *Song* (하권), 채은희 번역 (서울: 형설, 2007), 92.

53	1840	Romanzen und Balladen III	3	Seidl/Lorenz/Heine
57		Belsatzar	1	Heine
64	1841 ~47	Romanzen und Balladen IV	3	Mörike/Heine
77	1841 ~50	Lieder und Gesänge (Heft III)	5	Eichendorff Fallersleben Halm/Wolff/L' Egru
79	1849	Liederalbum für die Jugend	29	Fallersleben/Geibel Uhland/Overbeck/Kletke Hebbel/Andersen/Goethe Diepenbrock/Schiller Mörike/Rückert Folksong
83	1850	3 Gesänge	3	Buddeus/Rückert Eichendorff
87		Der Handschuh	1	Schiller
89		6 Gesänge	6	Neun
90		6 Gedichte von Lenau und Requiem	6	Lenau Lebrecht Dreves–Requiem
95	1849	3 Gesänge	3	Byron
96	1850	Lieder und Gesänge (Heft IV)	5	Goethe/Platen Neun/Anonymous
98a	1849	Lieder und Gesänge aus Goethe's 'Wilhelm Meister'	9	Goethe
104	1851	7 Lieder	7	Kulman
106	1849	Schön Hedwig	1	Hebbel
107	1851 ~52	6 Gesänge	6	Ullrich/Mörike/Heyse Müller/Kinkel
117	1851	4 HusarenLieder	4	Lenau
119		3 Gedichte	3	Pfarrius
122	1852	2 Balladen	2	Hebbel/Shelley
125	1851	5 Heitere Gesänge	5	Buddeus/Candidus Mörike/Braun/Heyse

127	1850 ~51	5 Lieder und Gesänge	5	Kerner/Heine Strachwitz/Shakespeare
135	1852	Gedichte der Königin Maria Stuart	5	Mary Stuart
142		4 Gesänge	4	Kerner/Heine/Bernhard
Wo07	1844	Soldatenlied	1	Fallersleben

슈만의 문학적 배경은 수준이 높았기 때문에 가사를 선택할 때 매우 까다로웠다.<sup>22)</sup> 그는 시에 나타난 주제와 감정을 묘사할 때 본인의 음악적 이상을 위해서 시어나 시절을 임의로 반복하거나 수정하기도 하였다.<sup>23)</sup>

슈만은 문자를 음형화하여 작품 속에서 사용했는데, 기교를 중시하는 당시의 음악적 성향보다는 무한한 상상력과 내면의 표현을 지향했기 때문이다.<sup>24)</sup> 이러한 암호적인 선율은 슈만의 문학적 소양과 관련이 있으며,<sup>25)</sup> 그의 피아노 작품에서 먼저 나타난다.

1831년 작곡된 《아베그 변주곡》(*Abegg Variation*, Op.1)은 아베그 백작부인(Paulin von Abegg)에게 헌정되었는데, 이름의 철자를 따와서 ‘A-B-E-G-G’의 주제를 만들어 사용했다.<sup>26)</sup> 1835년에 작곡된 《사육제》(*Carnaval*, Op.9)에서도 ‘Asch’라는 보헤미아 지방의 작은 거리의 이름으로 ‘A-E b -C-B’의 주제를 만들어 《사육제》 21곡 전체에 나타나고 있다. 이후 바흐를 존경한 슈만은 1845년 그의 이름으로 ‘B-A-C-H’의 주제를 만들어 《바흐에 의한 6개의 푸가》(*6 Fuga on BACH*, Op.60)을 작곡하였고, 1848년 《어린이를 위한 앨범》(*Album für*

22) Kimball, *Song* (하권), 92.

23) 김희열, “독일가곡과 슈만의 문학적 음악세계,” 독일문학 제 109집(2009), 163.

24) 김미영, “새로운 시적시대의 추구 : 슈만의 음악관,” 음악이론연구 제 11호(2006), 5.

25) 전옥길, “Johann Brahms의 《Variations on a Theme by R. Schumann, Op.9》에 나타나는 Clara Schumann의 《Variations on a Theme by R. Schumann, Op.20》의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15), 24.

26) 음악지우사(편), 『작곡가별 명곡해설 라이브러리 슈만』, 229.

*die Jugend* Op.68)의 제 41곡에서 친구 이름인 제이드 가데(Neils W. Gade)로 ‘G-A-D-E’의 주제를 만들어 작곡했다.<sup>27)</sup>

슈만은 연인인 클라라의 이름으로 ‘C-B-A-G(#)-A’의 주제를 만들었고, 그의 가곡에서 수없이 사용했으며 다양하게 변형시켜 나타낸다.<sup>28)</sup> 그의 가곡집 《미르텐》에서도 다양한 방법으로 ‘클라라 주제<sup>29)</sup>’가 나타난다.<sup>30)</sup>

---

27) 오숙인, “R. Schumann의 피아노 작품에 나타난 문학적 특징에 관한 연구. -Carnaval, Op.9를 중심으로-,” (경희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11), 20~21.

28) Kimball, *Song* (하권), 92.

29) ‘클라라 주제’는 기존 연구에 의해 슈만의 선율의 특정 형상이 클라라에 대한 암시적인 상징성을 가진다고 밝혀진 슈만의 음악적 특징이다. 1920년대에 보드키(Erwin Bodky, 1896~1958)에 의해 ‘C-B-A-G(#)-A’라는 특정 선율 패턴이 ‘클라라 주제’라고 정리되었고, 1945년 이후 학자들에 의해 슈만의 각 5음 간 반음 관계의 여부와 상관없이 5도로 순차하행하는 선율을 클라라의 주제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보았다. 전옥길, “Johann Brahms의 《Variations on a Theme by R. Schumann, Op.9》에 나타나는 Clara Schumann의 《Variations on a Theme by R. Schumann, Op.20》의 영향,” 24.

30) Sams, *The Song of Robert Schumann*, 49.

## 2. 프리드리히 뤼케르트의 생애와 작품

### 1) 생애

독일 낭만파 시인이자 동양학자인 뤼케르트는 바이에른 주 코부르크 근처인 슈바인푸르트(Schweinfurt)에서 변호사의 아들로 태어났다.<sup>31)</sup> 그는 어렸을 적 프란코니아 마을에서 보냈으며 일찍이 시에 재주를 보였고, 후에 뷔르츠부르크(Würzburg)와 하이델베르크, 예나에서 고전학을 공부했다. 이후 그는 하나우(Hanau)에서 교사로 일하면서, 전원에서 깊은 영감을 받아 소네트를 썼다.<sup>32)</sup>

그러던 중 나폴레옹 전쟁이 발발했고, 1813년 해방전쟁(Befreiungskrieg) 이후 1814년 프라이문트 라이머(Freimund Raimar)<sup>33)</sup>라는 필명으로 「독일 시집」(*Deutsche Sonette*)을 출간했다. 이 시집에 수록된 ‘무장한 소네트’(*Geharnischte Sonette*)가 큰 주목을 받았는데,<sup>34)</sup> 프로이센 인에게 나폴레옹의 지배에 대항하여 해방전쟁에 참여할 것을 촉구하는 강력한 메시지가 담겨 있다.<sup>35)</sup>

1815년 슈투트가르트로 이주했고, 잡지 「조선 시대창작」(*Morgenblatt für gebildete Stände*)를 편집했다. 1817년 이탈리아에서 1년 동안 지낸 후, 1818년에는 빈에서 지냈다. 이 때에 동양학자인 조셉 폰 함머-푸르그슈탈(Joseph von Hammer-Purgstall, 1744~1856)을 만나게 되었는데, 일찍이 괴테가 페르시아인 하피즈(Hafiz, 1315~1390)에게 관심을 갖게끔

---

31) Peter Branscombe and H. Prang and E. Witzig and M. Duttler and F. Golfing and K. Geodeke, "Rückert, Friedrich," in *The New Grove Dictionary of Music and Musicians* (London : Macmillan Publishers Limited, 1980), 310.

32) 이경숙, 『말러와 그의 가곡』 (서울: 도서출판 삶과 꿈, 2002), 129.

33) 'Freimund' 는 자유로운 입을 뜻하고 'Raimar' 는 시인을 뜻한다.

34) 피종호(편), 『아름다운 독일 連歌曲』 (고양: 도서출판 자작나무, 1999), 386.

35) 이경숙, 『말러와 그의 가곡』, 129.

일깨워준 사람이기도 했다. 뤼케르트는 그에게 페르시아어를 배웠고, 피테가 「서동시집」(*West-östlichen Divan*)에서 페르시아 시를 번역한 작품을 포함했던 것처럼, 1822년 뤼케르트도 자신의 첫 동양풍 시집인 「가젤렌」(*Ghaselen*)에 페르시아 시를 번역한 작품을 일부 포함하여 발간했다.<sup>36)</sup>

1822년에 그의 고향인 코부르크에 정착했고, 「동방의 장미」(*Östliche Rosen*)를 출간했으며, 그 곳에서 자료보관자의 딸과 결혼했다. 이 시기에 서정적인 시집인 「사랑의 봄」을 출간하였고 부인에게 헌정했다.

1826년에는 코부르크와 에어랑겐에서 지내면서 동양철학을 가르치고 다 른 한편으로는 산스크리트, 아랍어, 페르시아어, 히브리어, 중국어로 된 시 를 독일어로 번역하고 개작하면서, 모든 민족과 시대에 공통으로 있는 만고 무변의 진리를 영원히 변치 않는 현재성으로 끌어들이려고 했다. 이러한 노 력으로 후대에 가이벨(Franz Emanuel Geibel, 1815~1884)<sup>37)</sup>과 보텐슈 테트(Friedrich von Bodenstedt, 1819~1892) 등에게 영향을 주었다.<sup>38)</sup>

1833년 뤼케르트의 두 딸이 갑자기 성홍열로 세상을 떠나게 되자 딸들을 기리는 노래 「죽은 아이를 그리는 노래」(*Kindertotenlieder*)를 쓰게 되었다.<sup>39)</sup> 1836년부터 1839년까지 집필하여 출간한 여섯 권의 교훈시 「브라 만의 지혜」(*Die Weisheit des Bramanen*)는 인도의 인생관을 모방하여 삶의 체험을 나타낸 방대한 양의 작품으로 약 3,000개의 교훈이 수록되어 있다.<sup>40)</sup> 1841년부터 1848년까지 베를린 대학에서 동양어 교수로 재직하는 동안 1846년에 「집과 계절노래」(*Haus und Jahres Lieder*)를 출간하였 다. 은퇴 후에는 장인에게 물려받은 코부르크 근처 노이제스의 저택에서 생 활하면서 계속 학문연구와 시 창작을 하였고, 1866년 1월 31일 78세의 일

---

36) 이경숙, 『말러와 그의 가곡』, 129~130.

37) 슈만은 그의 가곡집 3 *Gedichte*, Op.30과 *Lieder und Gesänge*, Op.51(Heft II), *Liederalbum für die Jugend*, Op.79에 가이벨의 시를 발췌하여 작곡하였다.

38) 피종호(편), 『아름다운 독일 連歌曲』, 386.

39) 이경숙, 『말러와 그의 가곡』, 130.

40) 피종호(편), 『아름다운 독일 連歌曲』, 386.

기로 생을 마감하였다.<sup>41)</sup>

뤼케르트 시는 그가 생존해 있을 때에도 널리 읽혀졌지만, 사후에 12권 전집으로 발간되었고, 1881년과 1882년에도 다른 전집이 발간되었다. 그의 시에 대해서 지나치게 작위적이라는 평가와 함께 제 2차 세계대전 이후 최저까지 내려가기도 했지만, 오늘날에는 말의 실험자, 언어의 거장이라고 불리고 있다.<sup>42)</sup>

## 2) 작품

뤼케르트는 남녀의 사랑과 가족 이야기, 교훈적인 이야기 등과 같은 다양한 소재를 가지고 다작을 했던 시인으로,<sup>43)</sup> 초기에는 애국시인으로 활동하였지만 후에는 비더마이어(Biedermeier)<sup>44)</sup> 시인으로 활약했다.<sup>45)</sup>

뤼케르트 시는 섬세하고 맑으며 동양적인 분위기를 풍기며<sup>46)</sup>, 언어의 뜻보다는 울림을 더 중요시했다.<sup>47)</sup> 단순한 운율을 사용했으며, 당시 시인들이 사용하지 않았던 고대 문학의 형식을 추구하여 본인의 언어적 재능을 발휘했다.<sup>48)</sup> 또한 외국 문학을 번역하는데 그치지 않고 그 시형을 자신의 시에 도입하고 응용하여 독일어 특유의 운율을 가장 탁월하게 구사했다.<sup>49)</sup>

---

41) 이경숙, 『말러와 그의 가곡』, 131.

42) 이경숙, 위의 책, 131.

43) 피중호(편), 『아름다운 독일 連歌曲』, 386.

44) 비더마이어(Biedermeier) : 1815년부터 1848년에 정치적 풍조를 벗어나 평화적이고 소시민적인 환경을 즐기려는 경향으로 독일의 고전주의와 사실주의 중간에 위치한다. 특히 오스트리아의 고전주의나 바로크의 잔존 작가들에게 두드러진 현상이다.

<https://de.wikipedia.org/wiki/Biedermeier> (접속일자:2016/06/16)

45) 남미선, “Gustav Mahler의 《뤼케르트의 시에 의한 5개의 가곡 Fünf Lieder Nach Gedichten von Rückert》과 《죽은 아이를 그리는 노래 Kindertotenlieder》 비교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13), 28.

46) 김광규, 『19세기의 독일시』 (서울: 탐구당, 1980), 17.

47) 이경숙, 『말러와 그의 가곡』, 131.

48) 피중호(편), 『아름다운 독일 連歌曲』, 386.

49) 김광규, 『19세기의 독일시』, 17.

뤼케르트 시를 선호한 작곡가로는 슈베르트와 슈만, 클라라 슈만, 프란츠(Robert Franz, 1815~1892), 브람스(Johannes Brahms, 1833~1897), 볼프(Hugo Wolf, 1860~1903), 슈트라우스(Richard Strauss, 1864~1949), 피츠너(Hans Pfitzner, 1869~1949), 말러(Gustav Mahler, 1860~1911), 레거(Max Reger, 1873~1916) 등이 있다.<sup>50)</sup>

1822년 뤼케르트가 아내에게 헌정한 「사랑의 봄」은 발간과 동시에 큰 인기와 주목을 받았고, 후에 여러 작곡가들에게 영감을 주었다. 슈베르트는 이 시집에서 발췌한 시를 가사로 사용하여 4곡을 작곡했고, 슈만은 16곡을 작곡했으며, 클라라 슈만은 5곡을 작곡했다. 슈만이 작곡한 21곡 중 5곡은 듀엣곡이다.<sup>51)</sup> 다음은 뤼케르트의 시로 작곡한 슈만의 가곡이다(표2).

<표 2> 뤼케르트의 시에 의한 슈만 가곡(작품번호 순서)

작곡년도	곡 명	곡수
1840	Myrten, Op.25	5
	Lieder und Gesänge, Op.27 (Heft I)	1
	12 Gedichte aus Liebesfrühling, Op.37	12
1842	Lieder und Gesänge, Op.51 (Heft II)	1
1848	Abendlied, Op.71	7
1849	Liederalbum für die Jugend, Op.79	1
	Minnespiel, Op.101	8
1850	3 Gesänge, Op.83	1

50) 이경숙, 『말러와 그의 가곡』, 130.

51) Branscombe, "Rückert, Friedrich," 310.

### 3. 하인리히 하이네의 생애와 작품

#### 1) 생애

하이네는 독일 라인 강변의 뒤셀도르프에서 포목상을 운영하는 유대인 아버지 삼손 하이네(Samson Heine)와 어머니 엘리자베스 반 겔더른(Elisabeth van Geldern)의 장남으로 태어났는데, 어릴 적 이름은 하리 하이네(Harry Heine)였다.<sup>52)</sup>

하이네는 1814년에 고등학교를 졸업했고, 이후 프랑크푸르트로 가서 아버지의 일을 배우려고 했지만 실패했다. 그는 1816년 사촌 여동생인 아말리에 하이네(Amalie Heine)와 불행한 첫사랑을 겪었는데, 이때 이미 많은 시를 쓰고 있었다.<sup>53)</sup>

1818년 하이네는 함부르크로 가서 숙부인 살로몬 하이네(Salomon Heine)에게 재정지원을 받아 ‘하리 하이네 상회’라는 직물가게를 차렸으나, 장사에 별 관심이 없던 하이네<sup>54)</sup>는 얼마 못가서 파산하고 말았다. 1819년 법학을 공부한다는 조건<sup>55)</sup>으로 숙부에게 학비를 지원받아 본 대학에 입학했지만, 문학·역사·철학에 더 큰 관심을 가졌고 슐레겔(Fridrich von Schlegel, 1772~1829)의 강의를 들으며 문학적인 감성을 키워나가게 되었다.<sup>56)</sup> 그는 1821년에 괴팅엔 대학교에 등록했는데, 이때 동료학생과의

---

52) Heinrich Heine, 『노래의 책』(Buch der Lieder), 김재혁 번역 (서울: 문학과지성사, 2001), 349.

53) Heine, 위의 책, 349.

54) 하이네가 상업에 대한 무관심보다는 거부감이 컸다. 이러한 거부감은 선입견에 기초하고 있는데, 유럽의 유대인은 수 백 년 전부터 직업상의 예외규정 때문에 상업에만 의존했다. 그리하여 물건과 돈을 다루는 일은 유대인의 전유물이 되었으며, 이는 기독교 사회에 상인은 유대인이라는 선입견을 심었다. 한상희, “하인리히 하이네의 작품에 나타난 망명의식에 관한 고찰,” (성신여자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05), 27.

55) 하이네는 사실 법학 공부에는 관심이 없었지만, 관직이 있으면 독일 시민사회의 일원으로서 자신의 정체성을 획득할 수 있으리라고 믿었다. 한상희, “하인리히 하이네의 작품에 나타난 망명의식에 관한 고찰,” 32.

결투 사건으로 퇴학을 당했고, 당시 독일 사회의 반유대주의적 분위기 때문에 결국 대학생 조합(Buschenschaft)에서 제명되는 아픔을 겪었다. 같은 해 4월 베를린 대학교에 등록하여 1823년까지 4학기를 다녔는데, 당시 베를린 대학교의 철학교수로 재직 중이던 헤겔(Georg Wilhelm Friedrich Hegel, 1770~1831)의 강의를 들으며 영향을 받았다. 1824년 괴팅겐 대학교에 재등록하여 학업에 몰두했고, 같은 해 가을에 기분을 전환하기 위해 하르츠 산악 지대를 도보 여행하였는데, 그때의 경험을 소설화하여 시적 상상력을 이용한 사회비판적 단편들로 구성된 「하르츠 기행」(*Die Harzreise*)을 집필했다.<sup>57)</sup>

1825년 하이네는 법학 박사를 취득했고, 개신교로 개종하여 이름을 하리 하이네에서 하인리히 하이네(Heinrich Heine)로 개명했다. 멘델스존과 말러 또한 개종했는데, 당시 유대인은 사회적으로 진출할 기회가 없었기 때문이다. 하이네는 개종을 했지만 독일사회는 여전히 유대인으로 보았고, 공직으로 진출하려는 노력은 실패로 돌아갔다. 그러는 동안 그해 겨울에 하이네는 함부르크에 체류하면서 아말리에의 여동생 테레제 하이네(Therese Heine)와 두 번째 불행한 사랑을 하게 되었고, 문학작품에 전념하게 되었다.<sup>58)</sup>

그리하여 하이네는 1826년 「여행기 I」(*Reisebilder I*)와 1827년 「여행기 II」(*Reisebilder II*)를 출간했고, 이전에 썼던 서정시들을 모아 훗날 그에게 세계적인 서정 시인으로 명성을 안겨준 작품인 「노래의 책」(*Buch der Lieder*)을, 그리고 1829년 「여행기 III」(*Reisebilder III*)를 출간했

56) 이창복, 『문학과 음악의 황홀한 만남: 중세 연애시부터 현대 희곡까지, 음악과의 만남으로 탄생한 독일 문학 이야기』 (과주: 김영사, 2011), 242.

57) Peter Branscombe, and E. Galley and S. Seifert and F. Wilhelm and E. galley and H. Houben and F. Schnapp and K. Goedeke and R.H. Greinz and A. Bock. "Heine, Heinrich," in *The New Grove Dictionary of Music and Musicians* (London : Macmillan Publishers Limited, 1980), 437~438.

58) Heine, 『노래의 책』 (Buch der Lieder), 351.

다.<sup>59)</sup>

하이네는 프랑스 혁명이 발발한지 1년만인 1831년에 파리로 이주했고, 1832년부터 독일신문 및 잡지의 통신원 일을 시작했다. 그는 파리에서 다양한 사회생활을 적극적으로 참여했고, 옛 친구들의 주선으로 작가 발자크(Honore de Balzac, 1799~1850), 뒤마(Alexandre Dumas, 1802~1870), 빅토르 위고(Victor Hugo, 1802~1885), 조르주 상드(George Sand, 1804~1876) 등과 음악가 베를리오즈, 쇼팽, 리스트(Franz Liszt, 1811~1886) 등과 교제하면서 많은 영감을 받았다.<sup>60)</sup> 또한 하이네는 「프랑스의 화가들」(*Französischer Maler*), 「프랑스의 상황」(*Französischer Zustände*), 「독일 종교와 철학의 역사에 대하여」(*Zur Geschichte der Religion Schule*), 「낭만주의 학파」(*Die Romantische Schule*) 등의 저술 활동을 통해 독일 국민과 프랑스 국민 서로에게 두 나라간의 문화적 교류를 위한 역할을 했다.<sup>61)</sup>

1841년 8월 31일 하이네는 1834년부터 알고 지내던 18살 연하인 마틸데(Mathilde)와 결혼했다. 1843년에는 파리 망명 이후 최초로 독일 함부르크에 거주하는 어머니를 만난 후, 꿈을 주인공으로 하여 당시의 시대상황을 익살스럽게 풍자한 정치적 서사시인 「아타 트롤. 한 여름밤의 꿈」(*Atta Troll. Ein Sommernachtstraum*)을 발표했고, 그 다음 해인 1844년 아내 마틸데와 함께 두 번째 독일여행을 다녀온 후, 보수적인 독일 상황을 비판한 장편서사시 「독일. 겨울동화」(*Deutschland. Ein Wintermärchen*)와 「신시집」(*Neue Gedichte*)을 발표했다.<sup>62)</sup>

---

59) 김인, “하이네의 자유주의적 정치사상 연구 -독일학과에서의 활동을 중심으로-,” (조선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03), 3~5.

60) 이창복, 『문학과 음악의 황홀한 만남: 중세 연애시부터 현대 희곡까지, 음악과의 만남으로 탄생한 독일 문학 이야기』, 246.

61) 정원화, “슈만 《시인의 사랑》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15), 16.

62) 김인, “하이네의 자유주의적 정치사상 연구 -독일학과에서의 활동을 중심으로-,” 9~11.

같은 해 12월 이후 하이네의 건강은 급속히 악화되어 8년간 병상에서 누워 지내며 고통의 세월을 보내게 되는데, 그는 창작에 전념하거나 문병객과의 대화를 통해 통증과 걱정을 이겨내려고 노력했다.<sup>63)</sup> 1851년에 인간이 처한 조건에 관한 암울한 시각을 말하는 시집 「로만체로」(*Romanzero*)를 발간했고, 1854년에는 「시집 1853~1854」(*Gedichte 1853 und 1854*)와 「고백록」(*Geständnisse*), 「회상록」(*Memorien*), 「망명지의 신들」(*Die Götter in Exil*), 「다이아나 여신」(*Die Göttin Diana*), 「루테치아」(*Lutezia*) 등이 발간되었다.<sup>64)</sup>

하이네는 1856년 2월 17일 59세의 나이로 자택에서 눈을 감았고, 파리 몽마르뜨 공동묘지에 안장되었다. 그는 언제나 억압받는 자들의 편에 서서 작품 활동을 했다. 독일과 프랑스간의 화해와 유럽의 평화를 위해 노력한 언어의 마술사로서, 그의 영향은 오늘날까지도 전 세계에서 높이 평가되고 있다.<sup>65)</sup>

## 2) 작품

하이네는 당시 많은 유럽의 지식인들처럼 자유에 대한 강렬한 희망을 가지고 있었으며, 항상 자기 자신이 사회적 구성원에 속해 있기를 바랐다. 특히 사회적·정치적 상황들은 그에게 많은 영향을 주었다.<sup>66)</sup> 다음은 하이네의 대표적인 정치적 성향의 작품이다(표 3).

---

63) 최상안, 『하이네 회상록』 (마산: 경남대학교 출판부, 1997), 217.

64) Heine, 『노래의 책』 (Buch der Lieder), 355~357.

65) 이창복, 『문학과 음악의 황홀한 만남: 중세 연애시부터 현대 희곡까지, 음악과의 만남으로 탄생한 독일 문학 이야기』, 251.

66) 이창복, 위의 책, 244.

<표 3> 하이네의 대표적인 정치적 성향의 작품<sup>67)</sup>

출간년도	작 품 명
1826 ~1831	「여행기 I ~IV」 ( <i>Reisebilder I ~IV</i> )
1835	「낭만주의 학파」 ( <i>Die Romantische Schule</i> ) 「독일 종교와 철학의 역사에 대하여」 ( <i>Zur Geschichte der Religion Schule</i> ) 「프랑스의 화가들」 ( <i>Französischer Maler</i> ) 「프랑스의 상황」 ( <i>Französischer Zustände</i> )
1843	「아타트롤. 한 여름밤의 꿈」 ( <i>Atta Troll. Ein Sommernachtstraum</i> )
1844	「독일. 겨울동화」 ( <i>Deutschland. Ein Wintermärchen</i> ) 「신시집」 ( <i>Neue Gedichte</i> )
1851	「로만체로」 ( <i>Romanzero</i> )
1855	「루테치아」 ( <i>Lutezia</i> )

하이네의 수많은 작품 중 1827년 출간된 「노래의 책」은 당시로서는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의 성공을 거두었고, 오늘날까지도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인쇄되고 번역되고 있다. 이는 하이네를 낭만적인 서정 시인으로 일방적으로 단정 짓게 하는 고정관념을 만들어내기도 하였다.<sup>68)</sup> 다음은 하이네의 「노래의 책」의 집필년도이다(표 4).

67) 이창복, 『문학과 음악의 황홀한 만남: 중세 연애시부터 현대 희곡까지, 음악과의 만남으로 탄생한 독일 문학 이야기』, 243~250.

68) Heine, 『노래의 책』 (Buch der Lieder), 337.

<표 4> 「노래의 책」의 집필년도<sup>69)</sup>

집필년도	목차
1817~1821	젊은 날의 아픔 (Junge Leiden)
1822~1823	서정적 간주곡 (Lyrisches Intermezzo)
1823~1824	귀향 (Die Heimkehr)
1824	하르츠 기행에서 (Aus der Harzreise)
1825~1826	북해 (Die Nordsee)

하이네의 「노래의 책」은 많은 작곡가들에게 음악적인 영감을 주었는데, 그의 시를 선호한 작곡가로는 슈베르트, 멘델스존, 슈만, 프란츠, 브람스, 볼프, 슈트라우스 등이 있다.<sup>70)</sup>

「노래의 책」의 초기 시에서는 잃어버린 사랑이나 절망에 빠진 사랑, 대답 없는 불행한 사랑이 주 소재이고, 이러한 시들은 소박한 리듬의 짧은 민요조 형식이었기 때문에 유려한 음악성을 지니고 있어 작곡하기에 적합했다.<sup>71)</sup>

하이네가 초기에 이러한 시를 쓰게 된 것은 그의 사촌 누이인 아말리에와 그녀의 여동생인 테레제와의 불행한 사랑 때문이다. 사랑의 쓰라린 실연으로 인한 하이네의 마음의 상처가 그의 문학에 그대로 반영된다. 그의 시에서 사랑은 달콤하지만은 않고, 항상 증오심이 공존하는 이중적인 감정의 상태로 나타난다. 그에게 사랑과 실연은 시를 통해 사랑의 아름다움을 노래하는 원동력이 되었다.<sup>72)</sup>

슈만은 이러한 하이네의 작품에서 깊은 공감을 했으며 동질감을 느꼈을 것이다. 슈만이 작곡한 가곡 중 하이네의 시로 작곡된 가곡이 가장 많은 것

69) Heine, 『노래의 책』 (Buch der Lieder), 19.

70) 안소정, “문학의 음악성과 음악의 문학성 -슈만의 가곡집 《시인의 사랑》을 중심으로 -,” (고려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10), 21.

71) Heine, 『노래의 책』 (Buch der Lieder), 338.

72) Heine, 위의 책, 339~340.

을 보면 이해할 수 있다. 다음은 하이네의 시로 작곡한 슈만의 가곡이다(표 5).

<표 5> 하이네 시에 의한 슈만 가곡(작품번호 순서)

작곡년도	곡명	곡수
1840	Liederkreis, Op.24	9
	Myrten, Op.25	3
	7 Lieder, Op.33	1
	Romanzen und Balladen I, Op.45	1
	Dichterliebe, Op.48	16
	Romanzen und Balladen II, Op.49	2
	Romanzen und Balladen III, Op.53	1
	Belsatzar, Op.57	1
1841	Romanzen und Balladen IV, Op.64	3
1850	5 Lieder und Gesänge, Op.127	2
1852	4 Gesänge, Op.142	2

## 4. 가곡집 《미르텐》

### 1) 작품 개요

미르테(Myrte)는 잎과 꽃에서 은은한 딸기향이 나지만 맛이 쓰고, 손이 많이 가는 식물이다. 독일에서 전통적으로 결혼을 할 때 신부는 미르텐으로 화관을 만들어서 썼고, 신랑은 옷깃에 꽃았는데, 이는 신부와 신랑에게 서로를 보살피며 앞으로의 인생을 함께 할 것을 새겨주는 뜻이 담겨져 있음을 알 수 있다.<sup>73)</sup>

가곡집 《미르텐》은 1840년 2월부터 4월까지 작곡되었는데, 대부분은 2월에 만들어졌고 제 25곡은 4월에 작곡되었다.<sup>74)</sup>

1840년 2월 슈만은 클라라에게 다음과 같은 편지를 썼다.

“어제 아침부터 27페이지 정도의 음악(다소 새로운 것)을 썼습니다. 그것에 대해 작곡하면서 환희에 넘쳐 웃고 울고 하는 이 외에는 도저히 말할 수가 없습니다.”<sup>75)</sup>

슈만은 이 가곡집에 직접 《미르텐》(Myrten)이라고 이름을 붙이고, 사랑하는 신부인 클라라에게 결혼 전날 밤에 헌정하였다. 슈만은 《미르텐》을 과거의 기쁨과 슬픔에 대해서 작곡했다고 설명한다.<sup>76)</sup>

---

73) 지형주, “구월의 신부를 위한 노래 <미르텐 Myrten>에 담겨있는 슈만의 낭만성,” 23.

74) Sams, *The Song of Robert Schumann*, 49~76.

75) Sams, 위의 책, 49.

76) Sams, 위의 책, 49~50.

## 2) 구성

가곡집 《미르텐》은 모두 26곡의 작품이 있는데, 이는 알파벳 글자의 숫자와도 같다. 일관된 사상이나 스토리가 없지만 남녀의 본성과 남녀의 관계에 대한 아이디어로 클라라에 대한 사랑을 고백하기 위해 작곡된 서정적인 연애 노래이다.<sup>77)</sup>

가곡집 《미르텐》에 사용된 조성은 C, G, D, A, E, B, F, A $\flat$ , E $\flat$ , a, e, b로 모두 13개이며, 장조로 작곡된 곡은 모두 19곡이고 단조로 작곡된 곡은 7개이다. C Major는 1곡, a minor는 2곡, G Major는 5곡, e minor는 4곡, D Major와 b minor, A Major, E Major, B Major는 각각 1곡, F Major는 3곡, A $\flat$  Major는 3곡, E $\flat$  Major는 2곡으로, 이 중 슈만이 가곡집 《미르텐》에서 가장 즐겨 사용한 조성은 G Major임을 알 수 있다. 다음은 가곡집 《미르텐》의 구성이다(표 6).

<표 6> 가곡집 《미르텐》의 구성

작품순서와 제목	조성	시인/번역가
1. 헌정(Widmung)	A $\flat$	Rückert
2. 자유사상(Freisinn)	E $\flat$	Goethe
3. 호두나무(Der Nussbaum)	G	Mosen
4. 누군가(Jemand)	e	Burns/Gerhard
5. 나는 홀로 앉아있네(Sitz' ich allen)	E	Goethe
6. 내 곁에 앉지말라(Setze mir nicht)	a	
7. 연꽃(Die Lotosblume)	F	Heine
8. 부적(Talismane)	C	Goethe
9. 줄라이카의 노래(Lied der Suleika)	A	
10. 산지의 미망인(Die Hochländer-Witwe)	e	Burns/Gerhard
11. 신부의 노래 I(Lied der Braut I)	G	Rückert
12. 신부의 노래 II(Lied der Braut II)		
13. 산지의 이별(Hochländers Abschied)	b	Burns/Gerhard
14. 산지의 자장가(Hochländers Wiegenied)	D	
15. 히브리 노래로부터(Aus den hebräischen Gesängen)	e	Byron/Körner

77) Sams, *The Song of Robert Schumann*, 49~50.

16. 수수께끼 (Rätsel)	B	Byron/Kannegießer
17. 베니스의 노래 I(Venetianisches Lied I)	G	Moore/Freiligrath
18. 베니스의 노래 II(Venetianisches Lied II)		
19. 대위의 아내 (Hauptmann's Weib)	e	Burns/Gerhard
20. 멀리, 멀리 (Weit, weit)	a	
21. 고독한 눈물은 무엇인가(Was will die einsame Träne)	A	Heine
22. 아무도(Niemand)	F	Burns/Gerhard
23. 서쪽에서(Im Westen)		
24. 그대는 한 송이 꽃과 같네(Du bist wie eine Blume)	A b	Heine
25. 동쪽의 장미로부터(Aus den östlichen Rosen)	E b	Rückert
26. 끝맺음(Zum Schluss)	A b	

### 3) 시인

슈만의 대표적인 작품인 《시인의 사랑》과 《리더크라이스》(Op.24)는 하이네의 시로 구성되었고, 《여인의 사랑과 생애》는 샤미소(Albert von Chamisso, 1781~1838)의 시로 구성되었으며, 《리더크라이스》(Op.39)는 아이헨도르프(Joseph von Eichendorff, 1788~1857)로 구성되었다.

가곡집 《미르텐》에서는 슈만이 총 9명의 시인의 작품을 발췌하여 작곡했다. 독일 출생인 괴테와 뤼케르트, 하이네, 모젠(Julius Mosen, 1803~1867)과 영국 출생인 무어(Thomas Moore, 1779~1852)와 바이런, 여류 시인인 팬쇼(Catherine Maria Fanshawe, 1765~1832)가 있으며, 스코틀랜드 출생인 번즈(Robert Burns, 1759~1796)와 오스트리아 출생이자 독일 여배우인 빌레머(Marianne von Willemer, 1784~1860)가 있다.

이 중 영어권의 시인인 번즈, 바이런, 무어, 팬쇼의 시는 각각 게하르트(Gerhard), 쾨르너(Körner), 프라일리그라트(Freiligrath), 칸네기썸(Kannegießer)가 독일어로 번역하였다.

가곡집 《미르텐》에서 슈만이 발췌한 시의 개수는 일정하지 않은데, 그

중 가장 많은 시는 8개로 번즈의 작품이다. 다음으로는 뤼케르트의 시가 5개이고, 괴테의 시는 4개, 하이네의 시는 3개, 무어의 시는 2개이다. 뢰쇼와 빌레머, 바이런, 모젠의 시는 1개이다.

제 9곡인 줄라이카의 노래(*Lied der Suleika*)는 괴테의 ‘반조’ (*Abglanz*)에 대한 빌레머의 답시이고, 제 16곡인 수수께끼(*Rästel*)는 바이런의 시가 아니라 뢰쇼의 시인데, 시집 인쇄 시 착오가 일어난 것이다.<sup>78)</sup>

---

78) Sams, *The Song of Robert Schumann*, 59, 67.

## 5. 작품 분석

### 1) 제1곡 ‘헌정’ (Widmung)

#### (1) 가사<sup>79)</sup>

Du meine Seele, du mein <u>Herz</u> ,	-z	당신은 나의 영혼, 나의 심장,
Du meine Wonn', o du mein <u>Schmerz</u> ,	-z	당신은 나의 기쁨, 오 나의 고통,
Du meine Welt, in der ich <u>lebe</u> ,	-e	당신은 내가 살아가는 세상,
Mein Himmel du, darein ich <u>schwebe</u> ,	-e	나의 하늘은 당신, 그곳에 내가 떠다니네,
O du mein Grab, in das <u>hinab</u>	-b	오 당신은 나의 무덤, 그 속에
Ich ewig meinen Kummer <u>gab</u> !	-b	나의 근심을 영원히 내려놓으리!
Du bist die Ruh'; du bist der <u>Frieden</u> ;	-en	당신은 안식, 당신은 평안이오,
Du bist vom Himmel mir <u>beschieden</u> ,	-en	당신을 하늘이 내게 주셨네.
Dass du mich liebst, macht mich mir <u>wert</u> ,	-t	당신이 나를 사랑하기에, 내 삶은 가치 있고,
Dein Blick hat mich vor mir <u>verklärt</u> ,	-t	당신의 시선이 나를 정화시키고,
Du hebst mich liebend über <u>mich</u> ,	-ch	당신의 사랑으로 나를 승화시키네,
Mein guter Geist, mein bess' res <u>Ich</u> !	-ch	나의 선한 영혼, 나보다 더욱 선한 나!

뤼케르트의 「사랑의 봄」 중 첫 번째 화환의 ‘각성’ (*Erwacht*)에 수록된 3번째 작품으로 12행의 시이며,<sup>80)</sup> 각운이 두 행씩 쌍운으로 구성되어있다.

이 시의 1행에서 6행은 사랑하는 이를 나의 Seele(영혼), Herz(심장), Wonne(기쁨), Schmerz(아픔), Welt(세상), Himmel(하늘), 무덤(Grab), 근심(Kummer)등 ‘당신은 ~이다’ 라고 빗대어 적극적으로 사랑을 고백한다.<sup>81)</sup> 이때 사랑에 대한 표현을 Wonne(기쁨)-Schmerz(아픔)와 Himmel

79) 김희열, 『가곡으로 되살아난 독일 서정시Ⅱ -뤼케르트, 괴리케의 시와 연가곡, 기악가곡 및 악극 전 단계 가곡을 중심으로』 (파주: ㈜지식산업사, 2015), 53.

80) 김희열, 위의 책, 53.

(하늘)-Grab(무덤)의 대조를 통해, 언어의 이중성을 나타낸다.<sup>82)</sup>

7행과 8행에서는 사랑을 Ruhe(안심)과 Frieden(평화)로 묘사하고, 9행에서 12행은 사랑으로 인해 자기 자신이 가치 있는 존재가 되고, 신성하게 되고, 높은 정신을 승화하게 됨으로써 더 나은 자아가 된다는 것을 고백한다.<sup>83)</sup>

슈만은 뤼케르트(Reichardt)의 시를 그대로 사용하지 않고, 재해석하여 음악에서 다르게 구성한다. 음악적으로 단락이 구분되도록 하고, 곡 후반부에서 1행부터 4행의 가사와 마지막 행의 가사를 아래와 같이 반복하여 확장한다.<sup>84)</sup>

Du meine Seele, du mein Herz,	당신은 나의 영혼, 나의 심장,
Du meine Wonn', o du mein Schmerz,	당신은 나의 기쁨, 오 나의 고통,
Du meine Welt, in der ich lebe,	당신은 내가 살아가는 세상,
Mein Himmel du, darein ich schwebe,	나의 하늘은 당신, 그곳에 내가 떠다니네,
O du mein Grab, in das hinab	오 당신은 나의 무덤, 그 속에
Ich ewig meinen Kummer gab!	나의 근심을 영원히 내려놓으리!
Du bist die Ruh'; du bist der Frieden;	당신은 안식, 당신은 평안이오,
Du bist vom Himmel mir beschieden.	당신을 하늘이 내게 주셨네.
Dass du mich liebst, macht mich mir wert,	당신이 나를 사랑하기에, 내 삶은 가치 있고,
Dein Blick hat mich vor mir verklärt,	당신의 시선이 나를 정화시키고,
Du hebst mich liebend über mich,	당신의 사랑으로 나를 승화시키네,
Mein guter Geist, mein bess' res Ich!	나의 선한 영혼, 나보다 더욱 선한 나!
<b>Du meine Seele, du mein Herz,</b>	<b>당신은 나의 영혼, 나의 심장,</b>
<b>Du meine Wonn', o du mein Schmerz,</b>	<b>당신은 나의 기쁨, 오 나의 고통,</b>
<b>Du meine Welt, in der ich lebe,</b>	<b>당신은 내가 살아가는 세상,</b>

81) 지형주, “구월의 신부를 위한 노래 <미르텐 Myrten>에 담겨있는 슈만의 낭만성,” 25.

82) 박순희, “Dedication(Widmung), Op.25, No.1을 통해 본 R. Schumann의 음악구조와 이중성에 관한 一考,” 충남대학교 예술문화연구소, 제 13집(2006), 17.

83) 김희열, 『가곡으로 되살아난 독일 서정시Ⅱ - 뤼케르트, 뤼리케의 시와 연가곡, 기악가곡 및 악극 전 단계 가곡을 중심으로』, 53.

84) Sams, *The Song of Robert Schumann*, 51.

Mein Himmel du, darein ich schwebe,      나의 하늘은 당신, 그곳에 내가 떠다니네,  
 Mein guter Geist, mein bess' res Ich!      나의 선한 영혼, 나보다 더욱 선한 나!

슈만은 12행의 시를 17행으로 확장하여 A-B-A' 구성으로 작곡했다. A 부분은 시의 1행부터 6행까지이고, B부분은 시의 7행부터 12행까지이며, A' 부분은 슈만이 임의로 반복하여 확장한 부분이다.

A부분에서 시의 각 행을 2마디 단위로 노래하며, 1행의 가사를 제외하고 모두 못갓춘마디로 시작한다. B부분에서는 시의 7행과 8행을 4마디로 확장하여 노래하고 나머지 행은 모두 2마디 단위로 노래하며, 7행과 8행을 제외하고는 모두 못갓춘마디로 노래한다. A' 부분에서는 모든 행이 2마디 단위로 노래하며, 슈만이 임의로 반복하는 1행의 가사를 제외하고 모두 못갓춘마디로 시작한다.

<표 7> 제1곡 '헌정'의 시와 음악의 구조

A		B		A'	
전주	마디 1	7행	마디 14-17	1행	마디 30-31
1행	마디 2-3	8행	마디 18-21	2행	마디 32-33
2행	마디 4-5	9행	마디 22-23	3행	마디 34-35
3행	마디 6-7	10행	마디 24-25	4행	마디 36-37
4행	마디 8-9	11행	마디 26-27	12행	마디 38-39
5행	마디 10-11	12행	마디 28-29	후주	마디 40-44
6행	마디 12-13				

(2) 악곡분석

가곡집 《미르텐》의 첫 번째 곡 ‘헌정’ (Widmung)은 1840년 3월에 작곡되었고,<sup>85)</sup> A부분(마디 1-13) + B부분(마디 14-29) + A'부분(마디 30-44)로 구성되어 있다. 이 곡의 조성은 A b 장조이며, 3/2박자이다. 지시어는 독일어의 Innig, lebhaft(내면적으로, 생기있는)이라고 표시된다. 한 마디의 전주가 있고, 간주는 없으며 5마디로 구성된 후주가 있다.

<표 8> 제1곡 ‘헌정’의 악곡 구성

부분	A	B	A'
마디	1-13	14-29	30-44
조성	A b	E-A b	A b
빠르기	Innig, lebhaft		
박자	3/2		

① A부분

A부분은 12마디로 구성되어있고, A b 장조이다. 마디 1의 전주는 으뜸화음(I)으로 시작한다. 왼손의 베이스는 페달 포인트이고, 그 위에서 분산화음이 아치형으로 진행하며, 상행할 때 붓점 리듬이 활발한 분위기를 표현한다.

마디 2에서 ‘Du meine(당신은 나의)’는 처음에 제시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첫 박자에 노래하고, 마디 3과 마디 5에서 가사 ‘Du meine(당신은 나의)’는 못갓춘마디로 시작한다.

A부분의 주요 단어 중 선율의 진행이 감정표현에 있어 긍정적인 뜻의 단어와 부정적인 뜻의 단어로 나뉘어 각각 다르게 표현되어 있다. 긍정적인 뜻인 마디 2의 Seele(영혼)와 마디 3의 Herz(심장), 마디 4의 Wonne(기

85) Sams, *The Song of Robert Schumann*, 51.

쁨), 마디 6의 Welt(세상), 마디 7의 lebe(살다)와 Himmel(하늘), 마디 9의 schwebe(떠다니다), 마디 11의 ewig(영원한)에서 선율은 도약상행하며 화성은 장3화음을 사용하여 밝은 분위기를 나타낸다. 부정적인 뜻인 마디 5의 Schmerz(고통)와 마디 10의 Grab(무덤)은 선율이 순차하행하며, 화성은 a b 단조에서 차용한  $ii^{\flat 6}_5$ (마디 5)와 원 조의  $vii^{\circ 3}_3$ (마디 10)를 사용하여 시어의 느낌을 표현한다. 마디 4의 Wonne(기쁨)에서 마디 5의 Schmerz(고통)로 5도 하행하고, 마디 9의 schwebe(떠다니다)에서 마디 10의 Grab(무덤)으로 6도 하행하는데, 이는 단어에서 나타나는 대조를 표현한다. 앞에서 제시된 단어는 모두 긴 음가로 노래하고, 그 외의 언어는 모두 짧은 음가로 노래한다.<sup>86)</sup> 이후 마디 13에서 으뜸화음으로 마무리하여 A부분을 마무리한다(악보 1).

---

86) 박순희, “Dedication(Widmung), Op.25, No.1을 통해 본 R. Schumann의 음악구조와 이중성에 관한 一考,” 18~19.

<악보 1> 제1곡 '헌정' 마디 1-13

1 **A** Innig, lebhaft 긍정적인 단어에서 선율 상행

Singstimme Du mei-ne See - le, du mein Herz, du mei-ne

아치형 분산화음

Pianoforte *mf*

Ab: I 페달포인트(Pedal Point) I I

4 부정적인 단어에서 선율 하행

Wonn', o du mein Schmerz, du mei-ne Welt, in der ich

IV ii<sup>°</sup>6<sup>1</sup> (B.C) V I V

단어를 화성으로 표현

7 le - be, mein Him - mel du, dar - ein ich schwe - be, o du mein

IV I IV

10 Grab, in das hin - ab ich e - wig mei-nen Kum - mer gab!

*rit.*

vii<sup>°</sup>3 I I V I

단어를 화성으로 표현

## ② B부분

B부분의 첫 음은 G#인데, 이는 A부분의 마지막 음 A b 과 이명동음이다. 슈만은 A b 과 G#을 기준으로 E장조로 전조하여 진행한다. B부분은 16마디이며, 마디 14-25는 새로운 분위기로 진행되고 마디 26-29는 A부분의 유형이다.

마디 14-21은 시의 7행과 8행을 각각 4마디씩 확장하여 노래하고, 선율의 음역이 낮아지며 음가도 길어진다. 차분하고 진지한 분위기 속에서 피아노 반주부 오른손은 셋잇단음표의 화음연타로 진행하여 생동감을 지속시킨다.<sup>87)</sup> 오른손 화음 상성부와 성악 선율이 함께 노래하여 선율을 부각시킨다. 마디 17의 가사 Frieden(평화)를 나타내기 위해 피아노 왼손에서 B-E음으로 선행한 후, 성악 선율에서 음의 순서를 거꾸로 하여 E-B음으로 노래하고, 다시 피아노 왼손에서 B-E음으로 이어받아 울려 퍼지도록 하였다. 마디 21의 가사 beschieden(주다)를 성악선율과 피아노 오른손의 상성부, 왼손이 서로 만난다. 마디 14-21 왼손 테너 성부의 대선율 진행 E-D-C#-B-A는 클라라 주제를 변형한 것으로, 사랑을 속삭이는 슈만의 낭만성이 나타난다(악보 2).

---

87) 박순희, “Dedication(Widmung), Op.25, No.1을 통해 본 R. Schumann의 음악구조와 이중성에 관한 一考,” 20.

<악보 2> 제1곡 '헌정' 마디 13-21

13 gab! **이명동음 전조** *rit.*  $Ab \cong G\#$  **p** B Du 생동감 지속 **p** 셋잇단음표로 bist die Ruh', du

13 **p** 클라라 주제 인용

Ab: I E: I  $IV_4^6$  I

16 bist der Frie - den', du bist vom

16 **p** echo 효과

19 Him - mel mir be - schie - den. Daß du mich

19 **p** 가사를 강조 **p** 가사를 강조

ii  $ii_2^4$  I  $ii_5^6$   $I_4^6$  V

마디 22-25는 각 행을 2마디씩 노래하여 마디 14-21보다 축소된 형태이며 선율이 계속 상승하고, 피아노 반주부에서 양손이 밀집된 화음연타로 진행한다. 이러한 음악적인 변화는 감정표현에 있어서 점점 고조됨을 알 수 있다.

마디 22-25는 각 행을 2마디씩 노래하여 마디 14-21보다 축소된 형태이며 선율이 계속 상승하고, 피아노 반주부에서 양손이 밀집된 화음연타로 진행한다. 이러한 음악적인 변화는 감정표현에 있어서 점점 고조됨을 알 수 있다.

마디 22-25의 가사 중 주요 단어인 마디 22의 *liebst*(사랑하다)와 마디 23의 *wert*(가치), 마디 24의 *mich*(나를), 마디 25의 *verklärt*(정화하다)를 강조하기 위해 긴 음가로 노래한다. 특히 마디 23의 *wert*(가치)와 마디 25의 *verklärt*(정화하다)는 앞의 음을 계류하여 불협화음으로 나타낸 뒤 해결하여 강조한다.

마디 25-26에서 C#과 이명동음인 D $\flat$ 을 기준으로 원 조인 A $\flat$ 으로 전조하여 진행된다. 전조 후 마디 26-29의 선율은 새로우나 반주유형은 A부분과 같다. 마디 28-29의 가사 *Mein guter Geist, mein bess' res Ich!*(나의 선한 영혼, 나보다 더욱 선한 나!)의 선율을 피아노 오른손 상성부와 함께 점점 느리게(*ritard.*)로 노래하여 나타낸 후, B부분이 마무리된다(악보 3).

<악보 3> 제1곡 '헌정' 마디 13-29

중요한 단어에서 상행

21 schie - den. Daß du mich liebst, macht mich mir wert, dein Blick hat

반주유형이  
밀집된 화음연타로 변화

E: I<sub>4</sub><sup>6</sup> V<sub>2</sub><sup>-4</sup> I<sub>6</sub> rit. V<sub>3</sub><sup>4</sup> I

24 mich — vor mir ver klärt, du hebst mich C# = Db lie - bend ü - ber

이명동음 전조

rit. p

IV<sub>6</sub> IV -7 Ab: A부분 반주유형으로 진행 V<sub>7</sub>

27 mich, mein gu - ter Geist, mein bess'-res Ich!

가사를 강조

rit.

I<sub>4</sub><sup>6</sup> V<sub>2</sub><sup>4</sup>/V V<sub>7</sub>

③ A' 부분

10마디로 구성된 A' 부분은 원 조인 A b 장조이며, 시의 1-4행과 마지막 행을 각각 2마디씩 노래한다. 마디 36-37의 가사 Mein Himmel du, darein ich schwebe(나의 하늘은 당신, 그 곳에 내가 떠다니네)에서 A부분과 다른 새로운 멜로디로 노래하며, steigend und eilend(상행하고 급하게)로 점점 빠르게 고조된 감정 상태를 표현한다. 마디 38-39의 가사 Mein guter Geist, mein bess' res Ich!(나의 선한 영혼, 나보다 더욱 선한 나!)의 반주에서 갑작스런 호모포니 진행으로 가사를 강조하고, 단어마다 각각 다른 화성을 사용하여 풍부한 색채로 표현한다. 이후 마디 39에서 다시 아치형 분산화음으로 진행하여 후주가 시작된다(악보 4).

<악보 4> 제1곡 '헌정' 마디 30-39

30 *f* [A']  
 Du mei-ne see - le, du mein Herz, du mei-ne Wonn', o du mein

33  
 Schmerz, du mei-ne Welt, in der ich le - be, mein Him - mel  
*steigend und*

36  
 du, dar - ein ich schwe - be, mein gu-ter Geist, mein bess - ress Ich!  
*eilend rit. p*

Ab: I I IV  
 ii<sup>♭</sup><sub>3</sub> V<sup>♯</sup><sub>2</sub> I<sub>6</sub> V<sup>♯</sup><sub>3</sub> I V<sup>♯</sup><sub>2</sub>/ii  
 ii<sub>6</sub> V<sup>♯</sup><sub>3</sub>/ii V/ii ii ii<sub>6</sub> I<sup>♭</sup><sub>7</sub> vii<sup>♭</sup><sub>2</sub>/V V

상행하고 급하게  
 갑작스런 호모포니 진행과 ritard.로 가사를 강조

④ 후주

후주의 선율은 슈베르트의 유명한 가곡인 ‘아베 마리아’ (Ave Maria D. 839)의 선율을 인용하고 있다(악보 6).<sup>88)</sup> 이 선율을 두 번 반복하며, 반복할 때 점점느리게 노래하여 긴 여운을 남기며 마무리한다(악보 5).

<악보 5> 제1곡 ‘현정’ 마디 39-44

39  
Ich!  
p  
Ab: I  
rit. -  $vii^{\circ 6}/V$  - 슈베르트의 가곡 - 아베마리아 D.839 인용 -  $V_7$   
41  
I  $vii^{\circ 6}/V$   $V_7$  I I

<악보 6> 슈베르트의 ‘아베 마리아 D. 839’ 마디 3-4

3  
A - ve Ma - ri - a!  
Jung - frau

88) Sams, *The Song of Robert Schumann*, 52.

2) 제7곡 ‘연꽃’ (Die Lotosblume)

(1) 가사<sup>89)</sup>

Die Lotosblume <u>ängstigt</u>	-t	연꽃은 두려워하네
Sich vor der Sonne <u>Pracht</u> ,	-t	태양의 화려함에,
Und mit gesenktem <u>Haupte</u>	-e	고개를 숙이고
Erwartet sie träumend die <u>Nacht</u> .	-t	꿈꾸며 밤을 기다리네.
Der Mond der ist ihr <u>Buhle</u> ,	-e	달은 그녀의 연인,
Er weckt sie mit seinem <u>Licht</u> ,	-t	자신의 빛으로 깨우네,
Und ihm entschleiert sie <u>freundlich</u>	-ch	그리고 다정하게 모습을 드러내네
Ihr frommes <u>Blumengesicht</u> .	-t	경건한 꽃의 모습.
Sie blüht und glüht und <u>leuchtet</u> ,	-t	활짝 꽃피어 빛나네,
Und starret stumm in die <u>Höh'</u> ;	-e	말없이 위를 바라보곤;
Sie duftet und weinet und <u>zittert</u>	-t	향기를 풍기고 울며 전율하네
Vor Liebe und <u>Liebesweh</u> .	-eh	사랑 그리고 사랑의 고통 앞에.

하이네의 「노래의 책」 중 ‘서정적 간주곡’ (Lyrisches Intermezzo)에 수록된 10번째 작품으로, 3연 4행이다.<sup>90)</sup> 이 시는 1연의 1행과 2행은 쌍운이고, 그 외의 행은 다르게 구성되어있다.

이 시의 중심 소재는 Lotosblume(연꽃)와 Mond(달)이다. 1연에서 연꽃이 태양으로 인해 두려워하고, 고개를 숙인채로 밤을 기다리는 모습을 이야

89) Heine, 『노래의 책』 (Buch der Lieder), 118~119.

90) Heine, 위의 책, 118.

기한다. 2연에서는 달이 등장하여 자신의 빛으로 고개 숙이고 있는 연꽃을 깨우고, 연꽃은 자신의 모습을 드러낸다. 3연에서는 연꽃이 피어나는 모습을 blüht(꽃피다), glüht(작열하다), leuchtet(빛나다)를 통해 여인의 아름다움을 표현한다. 이어 duftet(향기를 풍기다), weinet(울다), zittert(전율하다)의 동사를 나열하여 사랑을 통해 느끼는 기쁨과 사랑의 아픔의 감정을 표현하고 있다. 이러한 모습의 이유를 Vor Liebe und Liebesweh(사랑과 사랑의 고통 앞에)라고 말한다.

슈만은 하이네의 시를 그대로 사용하지 않고, 3연 4행의 가사 Vor Liebe und Liebesweh(사랑 그리고 사랑의 고통 앞에)를 한 번 더 반복하여 확장하고,<sup>91)</sup> A-B-C 구성으로 작곡했다. A부분은 시의 1연이고, B부분은 2연이며, C부분은 3연과 12행이다. 모든 행은 2마디 단위로 노래한다.

<표 9> 제7곡 ‘연꽃’의 시와 음악의 구조

A		B		C				
1연	전주	마디 1	2연	1행	마디 10-11	3연	1행	마디 18-19
	1행	마디 2-3		2행	마디 12-13		2행	마디 20-21
	2행	마디 4-5		3행	마디 14-15		3행	마디 22-23
	3행	마디 6-7		4행	마디 16-17		4행	마디 24-27
	4행	마디 8-9						

91) Heine, 『노래의 책』 (Buch der Lieder), 361.

(2) 악곡분석

가곡집 《미르텐》의 7번째 곡 ‘연꽃’ (Die Lotosblume)은 1840년 2월에 작곡되었고,<sup>92)</sup> A부분(마디 1-9) + B부분(마디 10-17) + C부분(마디 18-27)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곡의 조성은 F장조이며, 6/4박자이다. 지시어는 독일어의 Ziemlich langsam(매우 느리게)이라고 표시된다. 한 마디의 전주가 있고 간주와 후주는 없다.

<표 10> 제7곡 ‘연꽃’의 악곡 구성

부분	A	B	C
마디	1-9	10-17	18-27
조성	F	A b - F	B b - F
빠르기	Ziemlich langsam		
박자	6/4		

① A부분

9마디로 구성된 A부분은 F장조로 시작한다. 선율은 도약이 거의 없는 순차적인 하행과 상행을 반복하며, 피아노 반주에서는 오른손이 화음연타로 진행하고 왼손은 페달 포인트로 진행한다. 한 마디의 전주가 있는데, 피아노 반주부 오른손에서  $I_4^6$ 로 진행하여 C장조의 느낌이 나게 하며, 슬러 스타카토가 물위에 떠있는 연꽃을 연상한다. 마디2 피아노 반주부 왼손의 F음(으뜸음)으로 인해 F장조의 조성이 확실해진다.

마디 2-3의 선율은 Die Lotosblume ängstigt(연꽃은 두려워하네)라는 가사에서 클라라 주제를 인용하여 C-B-A-G#-A로 진행하며, 마디 6-7

92) Sams, *The Song of Robert Schumann*, 57.

의 가사 Und mit gesenktem Haupte(고개를 숙이고)에서 성악 선율이 순차적으로 하행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마디 2-3의 가사와 마디 5의 가사 Pracht(화려함), 마디 9의 가사 Nacht(밤)의 피아노 오른손 화성 상성부에서 성악 선율과 같은 선율로 노래하고, 그 외의 가사는 오른손 화성의 내성에서 성악 선율과 함께 노래한다. 마디 8의 가사 träumend(꿈꾸다)에서는 오른손 상성부와 성악 선율이 병행6도 관계로 진행하는데, 이는 현실이 아닌 시어의 뜻을 음정관계로 표현한다.

마디 3의 왼손 진행은 문장의 흐름을 연결하는 역할이고, 마디 5의 왼손 진행은 문장을 구분지어 주는 역할을 한다. 마디 7 왼손의 반음계 진행과 크레센도로 마디 8-9의 가사 Erwartet sie träumend die Nacht(꿈꾸며 밤을 기다리네)를 선행하고, 마디 8의 성악 선율은 상행하며 임시표 B<sub>4</sub>음으로 밝은 분위기가 나타난다. 이후 마디 9에서 A부분이 마무리되고, 피아노 반주부 오른손 화음의 음역이 낮은음자리표에서 높은음자리표로 이동하여 B부분의 시작을 준비한다(악보 7).

<악보 7> 제7곡 '연꽃' 마디 1-9

1 [A] Ziemlich langsam *p* 클라라 주제 인용

Die Lo - tos - blu - me äng - stigt  
상성부 선율

물에 떠있는 연꽃을 연상 I 다음 문장으로 이어주는 역할

4 sich vor der Son - ne Pracht, 가사의 의미에 맞게 und mit ge - senk - tem  
선율이 하행 내성부 선율

내성부 선율

7 Haup - te er - war - tet sie träu - mend die Nacht. Der  
문장을 구분지어주는 역할

6도 관계로 진행

음역이 이동하여 이야기의 전환을 예상할 수 있음

## ② B부분

8마디로 구성된 B부분은 A b 장조로 시작하여 달의 등장을 이야기하는데, 달빛의 은은한 색채를 느낄 수 있다. 마디 10-12의 반주는 모든 음역이 높은음자리표 음역에서 밀집된 화음 연타로 진행된다. 성악 선율보다 오른손 화음 상성부의 음역이 더 높는데, 이는 달이 밤하늘에 떠있는 것을 연상한다.

마디 13부터 피아노 반주부 왼손의 음역이 낮은음자리표로 이동하여 양손이 밀집된 화음연타로 진행한다. 마디 13-14 오른손 내성의 E<sup>b</sup>-E<sup>b</sup>-F의 진행으로 반음계적 전조가 이루어져 원 조인 F장조로 돌아와 연꽃의 모습을 이야기한다.

마디 14-15의 가사 Und ihm entschleiert sie freundlich(그리고 다정하게 모습을 드러내네)처럼 성악 선율은 크레센도로 순차상행하여 가사를 표현하고, 마디 15의 피아노 반주부에서 성악 선율을 이어받아 반음계적 진행을 크레센도하여 문장을 연결해주는 동시에 감정이 고조됨을 표현한다. 마디 16에서 성악 선율과 피아노 반주가 테크레센도로 하행하고, 마디 17에서 허위중지하여 감정이 해소되지 않은 채 C부분이 시작된다(악보 8).

<악보 8> 제7곡 '연꽃' 마디 9-17

9 Nacht. Der Mond, der ist ihr Buh - le, er

상성부가 성악선율보다 높다. 달의 모습을 형상화

달의 등장으로 모든 음역이 높은음자리표에서 진행

가사의 의미에 맞게 선율이 순차상행하고 cresc.로 진행

12 weckt sie mit sei - nem Licht, und ihm ent - schlei - ert sie

연꽃의 등장으로 음역이 낮은음자리표로 이동

15 freund - lich ihr from - mes Blu - men - ge - sicht. Sie

고조되는 감정을 반응계적 진행과 cresc.로 표현

허위중지

### ③ C부분

10마디로 구성된 C부분은 B $\flat$  장조로 시작한다. 마디 18-23의 가사에서 연꽃의 모습을 blüht(꽃피다), glüht(작열하다), leuchtet(빛나다), starret(바라보다), duftet(향기내다), weinet(울다), zittert(전율하다)의 동사로 나열하고, 선율은 계속 상승한다. 이때 nach und nach schneller(점점 빠르게)의 음악 지시어와 크레센도로 연꽃의 감정을 표현한다.

마디 19의 가사 leuchtet(빛나다)와 마디 21의 가사 'Höh' (높은), 마디 23의 가사 zittert(전율하다)의 선율에 전타음을 사용하여 강조한다. 가사 zittert(전율하다)에서는 이 곡에서 가장 높은 음인 G음에서 노래하여 연꽃의 감정이 최고조임을 표현한다.

마디 23에서 데크레센도와 리타르단도로 고조된 감정을 가라앉히고, 마디 24부터서 원 조인 F장조로 돌아와 마지막 가사인 Vor Liebe und Liebesweh(사랑 그리고 사랑의 고통 앞에)를 마디 24-27에서 두 번 반복하여 노래한다. 이 가사는 사랑의 이중성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연꽃의 행동에 대한 이유이기도 하다. 가사를 반복할 때, 마디 24-25와 마디 26-27에서 같은 화성진행을 하고, 특히 Liebesweh(사랑의 고통)를 강조하기 위해 성악 선율에서 리듬을 다르게 사용한다.

마디 25에서 반복하는 가사 사이에 피아노 반주부의 화성을 마디 24, 26과 같게 하여 피아노에서도 그 가사를 말하고 있는 듯한 효과를 준다. 마디 26-27에서 늘임표와 리타르단도로 더 길게 확장하고, 쉼표로 인해 곡의 여운을 느낄 수 있도록 한다(악보 9).

<악보 9> 제7곡 '연꽃' 마디 17-27

17 *nach und nach schneller* 점점 빠르게

sicht. Sie **blüht** und **glüht** und **leuch - tet.** und star - ret stumm in die

상행하는 선율

21 Höh'; sie **duf - tet** und **wei - nel** und **zit - ter** vor Lie - be und Lie - bes -

25 weh, vor Lie - be und Lie - bes - weh.

리듬을 다르게 하여 가사를 강조

Vor Liebe und Liebesweh와 V  
화성진행을 같게 하여  
echo효과를 준다.

악보 상세 설명: 이 악보는 '연꽃'의 17-27마디를 보여줍니다. 17마디는 'nach und nach schneller'로 시작하며, 'sicht. Sie blüht und glüht und leuch - tet. und star - ret stumm in die'라는 가사를 담고 있습니다. 21마디는 'Höh'; sie duf - tet und wei - nel und zit - ter vor Lie - be und Lie - bes -'를 포함하며, 'p'와 'rit.' 표시가 있습니다. 25마디는 'weh, vor Lie - be und Lie - bes - weh.'로 끝나며, 'rit.' 표시가 있습니다. 화성 분석은 F: V<sub>5</sub><sup>6</sup>/vi, Bb: V<sub>3</sub><sup>4</sup>, I, V<sub>5</sub><sup>6</sup> 가장 높은 음 I, V<sub>3</sub><sup>4</sup>, I, V<sub>5</sub><sup>6</sup>, I, V<sub>2</sub><sup>4</sup>/V, V<sub>6</sub>, V<sub>5</sub><sup>6</sup>/ii, F: I<sub>4</sub><sup>6</sup>, vii<sub>7</sub><sup>7</sup>/V, V<sub>2</sub><sup>4</sup>, I, I<sub>4</sub><sup>6</sup>, vii<sub>7</sub><sup>7</sup>/V, V<sub>7</sub>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악보 하단에는 화성진행의 유사성을 강조하여 echo 효과를 만든다는 설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3) 제11곡 ‘신부의 노래 I’ (Lied der Braut I)

(1) 가사<sup>93)</sup>

Mutter, Mutter! glaube <u>nicht</u> ,	-t 어머니, 어머니! 믿지 마세요,
Weil ich ihn lieb also <u>sehr</u> ,	-r 내가 그를 너무 사랑하기에
Dass nun Liebe mir <u>gebricht</u> ,	-t 당신을 사랑하는 마음이,
Dich zu lieben, wie <u>vorher</u> .	-r 예전보다, 적어졌다고.
Mutter, Mutter! seit ich <u>ihn</u>	-n 어머니, 어머니! 내가 그를 사랑한 이후로,
Liebe, lieb' ich erst dich <u>sehr</u> .	-r 당신을 온전히 사랑하게 되었어요.
Lass mich an mein Herz dich <u>zieh' n</u> ,	-n 당신을 내 가슴에 안고,
Und dich küssen, wie mich <u>er</u> .	-r 입맞춤하게 해주세요, 그 사람처럼.
Mutter, Mutter! seit ich <u>ihn</u>	-n 어머니, 어머니! 내가 그를 사랑한 이후로,
Liebe, lieb' ich erst dich <u>ganz</u> ,	-z 당신을 온전히 사랑하게 되었어요.
Dass du mir das Sein <u>verlieh' n</u> ,	-n 당신이 내게 생명 주었고,
Das mir ward zu solchem <u>Glanz</u> .	-z 이렇게 빛나는 존재가 되었으니.

뤼케르트 「사랑의 봄」 중 여섯 번째 화환의 ‘결합’ (Verbunden)에 수록된 33번째 작품으로 3연 4행이고,<sup>94)</sup> 각운이 두 행씩 쌍운으로 구성되어 있다. ‘신부의 노래 II’ 와 동일한 시상이다.

이 시는 각 연의 첫 시작마다 Mutter, Mutter!(어머니, 어머니!)라고 이야기한다. 1연에서는 결혼을 앞둔 딸이 어머니에게 이제 사랑하는 사람이

93) 김희열, 『가곡으로 되살아난 독일 서정시Ⅱ -뤼케르트, 뢰리케의 시와 연가곡, 기악가곡 및 악극 전 단계 가곡을 중심으로』, 54~55.

94) 김희열, 위의 책, 54.

생겼다고 해서 예전처럼 어머니를 사랑하는 일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지 말라고 노래하고 있다. 2연은 신부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마음이 끌리고 있지만, 그 때문에 어머니가 그녀에게서 멀어지지 않기를 바라고 있다. 3연에서 어머니는 신부에게 존재의 뜻을 주었고, 이는 빛나는 일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sup>95)</sup>

슈만은 뤼케르트의 시를 그대로 사용하지 않고, 2연 4행의 가사 wie mich er!(그 사람처럼!)를 2번 더 반복하여 확장하며, 3연 4행의 가사 Das mir ward zu solchem Glanz(이렇게 빛나는 존재가 되었으니)를 한번 더 반복하여 노래한다.<sup>96)</sup> 슈만은 이 시를 A-B-A' 구성으로 작곡했다. A부분은 시의 1연이고, B부분은 2연이며, A' 부분은 3연과 3연의 4행이다. A부분에서 1연의 1행과 2행은 4마디로 노래하고, 1연의 3행과 4행은 2마디로 노래한다. B부분에서는 2연의 1행과 3행은 2마디 단위로 노래하고, 2연의 4행은 6마디로 확장하여 노래한다. A' 부분에서 3연의 1행과 2행은 4마디로 노래하고, 3연의 3행과 4행은 2마디로 노래한다. 3연의 4행을 반복할 때는 3마디로 확장하여 노래한다.

<표 11> 제11곡 '신부의 노래 I'의 시와 음악의 구조

A			B			A'		
1연	전주	마디 1-2	2연	1행	마디 15-16	3연	1행	마디 27-30
	1행	마디 3-6		2행	마디 17-18		2행	마디 31-34
	2행	마디 7-10		3행	마디 19-20		3행	마디 35-36
	3행	마디 11-12		4행	마디 21-26		4행	마디 37-41
	4행	마디 13-14					후주	마디 41-49

95) 김희열, 『가곡으로 되살아난 독일 서정시Ⅱ - 뤼케르트, 뢰리케의 시와 연가곡, 기악가곡 및 약극 전 단계 가곡을 중심으로』, 54~55.

96) Sams, *The Song of Robert Schumann*, 62.

(2) 악곡분석

가곡집 《미르텐》의 11번째 곡 ‘신부의 노래 I’ (Lied der Braut I)는 1840년 2월에 작곡되었고,<sup>97)</sup> A부분(마디 1-14) + B부분(마디 15-26) + A’부분(마디 27-49)로 구성되어 있다. 이 곡의 조성은 G장조이며, 2/4 박자이다. 지시어는 독일어의 Sehr innig(매우 내면적으로)와 이탈리아어의 Andantino(조금 느리게)라고 표시된다. 2마디의 전주가 있고, 간주는 없으며 9마디로 구성된 후주가 있다.

<표 12> 제11곡 ‘신부의 노래 I’의 악곡 구성

부분	A	B	A’
마디	1-14	15-26	27-49
조성	G		
빠르기	Sehr innig / Andantino - Adagio		
박자	2/4		



① A부분

14마디로 구성된 A부분은 G장조로 시작한다. 마디 1에 표시되어있는 음악 지시어 중 독일어로 된 Sehr innig(매우 내면적으로)는 작품의 캐릭터를 말하며, 이탈리아어로 된 Andantino는 템포를 말한다. 전주(마디 1-2)에서 B-D음으로 하행하는 선율은 이 곡 전체의 성악 선율에서 그대로 나오거나 변형된 형태로 나타난다. 첫 화성을 아르페지오로 연주하는데, 이는 시작부터 감정이 흥분된 상태임을 알 수 있다.

성악 선율에서 1연의 1행과 2행은 4마디씩 노래하고 3행과 4행은 리듬

97) Sams, *The Song of Robert Schumann*, 62.

이 축소된 형태로 2마디씩 노래하는데, 이는 고조되는 감정을 표현한 것이다.

피아노 반주부 왼손에서 전반적으로 2단위의 화성진행을 하는데, 다양한 색채감이 나타난다. 마디 1-4와 같이 I-V의 단순한 진행이지만, G장조의 V로 D장조의 느낌이 나게 하고, 다시 G장조의 I를 거쳐 V<sub>7</sub>/V에서는 A장조의 느낌이 나게 하여 다양한 화성의 색채로 흥분된 감정을 표현하고 있다. 또한 마디 9부터는 화성이 3개에서 4개, 5개 점차 쌓이기도 하고 외성부의 간격 또한 점점 커져서 10도 차이가 난다. 오른손에서는 쉽표 후에 왼손에서 제시된 같은 화성의 음들을  묶음으로 배치하여 빈 공간을 채워준다. 오른손  는 보통 한 옥타브 이상 큰 도약을 하고 성악 선율보다 높은 음역에 위치하는데, 넘치는 감정을 더 적극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마디 8-10의 왼손 화성의 내성에서 C-B-A-G#-A 진행의 클라라 주제를 사용하여 가사 weil ich ihn lieb' also sehr(내가 그를 너무 사랑하기에)를 표현하며<sup>98)</sup>, 마디 12의 gebricht(깨지다)에서 피아노 반주부 왼손에서 악센트를 사용하여 시어를 표현한다. 이후 마디 14에서 점점 느리게 연주하여 A부분을 마무리한다(악보 10).

---

98) Sams, *The Song of Robert Schumann*, 62.

<악보 10> 제11곡 ‘신부의 노래 I’ 마디 1-14

1 **A** *Schr innig* 캐릭터 *p* *nicht schnell*  
 Andantino 템포  
 Mut - ter, Mut - ter! glau - be  
 D장조 느낌 A장조 느낌  
 G: I pedal I V<sub>7</sub>/V I V<sub>7</sub>/V  
 B음에서 D음으로 하행 고조된 감정표현  
 nicht, weil ich ihn lieb' all - so - sehr, daß nun  
 클라라 주제 인용  
 V I IV<sub>6</sub> vii<sup>o4</sup>/ii ii<sub>6</sub> V<sub>2</sub><sup>4</sup>/ii ii  
 11 Lie - be mir ge - bricht dich zu lie - ben, wie vor - her.  
 시어 표현  
 V<sub>5</sub><sup>6</sup> ii<sub>3</sub><sup>4</sup> V<sub>3</sub>/vi vi V<sub>5</sub><sup>6</sup>/V V

② B부분

B부분은 12마디로 구성되어 있다. 성악 선율에서 2연의 1행과 3행은 2마디씩 노래하고 2연의 4행은 리듬을 확장하여 3마디로 노래한다. 이후 4행의 가사 중 wie mich er(그 사람처럼)를 슈만이 임의로 3마디 동안(마디 24-26) 반복하여 확장한다.<sup>99)</sup> 2연의 4행을 6마디로 확장한 것을 제외하고, 나머지 행은 A부분과 비교했을 때 리듬이 축소된 형태로 진행된다.

99) Sams, *The Song of Robert Schumann*, 62.

피아노 반주부에서는 A부분과 비교했을 때 왼손의 움직임이 더 많아졌다.

마디 15의 성악 선율은 전주(마디 1-2)에서 제시된 B-D음으로 하행하는 선율을 상행선율로 변형하여 노래한다. A부분의 가사 Mutter, Mutter!(어머니, 어머니!)를 2마디 동안(마디 3-4) 노래했다면, B부분의 가사 Mutter, Mutter!(어머니, 어머니!)는 마디 15에서 붓점 리듬과 셋잇단음표를 사용하여 분할된 리듬으로 노래한다. 슈만은 마디 15에 지시어 더 빠르게(schneller)를 표시했는데, 이는 단순히 속도감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감정표현의 일부이다. 마디 17-18의 가사 Lieb' ich erst dich sehr(당신을 온전히 사랑하게 되었어요)를 마디 18에서 점점 느리게 연주하여 강조한다.

마디 22의 가사 wie mich er(그 사람처럼)피아노 반주부 오른손에서 마디 22의 성악 선율을 이어받아 마디 23에서 4도 상행, 마디 24에서 6도 상행하여 노래하고, 왼손의 화성은 2개에서 3개, 4개, 5개까지 쌓아올리며 강조한다. 마디 23-26의 성악 선율은 가사를 읊조리는 듯한 선율을 노래한다. 마디 25-26 왼손에서 아르페지오로 드라마틱하게 감정을 표현하고, 오른손의 하행하는 선율은 점점 여리게 하행하고 점점 느리게 연주하여 B부분을 마무리한다(악보 11).

<악보 11> 제11곡 ‘신부의 노래 I’ 마디 15-26

15 *schneller* B음에서 D음으로 상행 *rit.*  
 Mut - ter, Mut - ter! seit ich ihn lie - be, lieb' ich erst dieh sehr.  
 가사를 강조

19 더 빠르게. 감정표현의 일부 왼손의 움직임이 많아짐  
 Laß mich an mein Herz dich zieh'n, und dich kü - ssen, wie mich

23 *rit.*  
 er, wie mich er, wie er!  
 4도 상행 6도 상행  
 화성이 점차 두터워지고 외성부의 도약이 커짐

③ A' 부분

A부분의 마디 3-10과 A' 부분의 마디 27-34는 화성 진행, 성악 선율, 피아노 반주부가 모두 같다. 마디 35 가사 Sein(생명)에서 성악 선율은 5도 상행하여 G음으로 노래하여 강조한다. 마디 31-34와 마디 35-37의 반주 유형은 비슷하나 마디 36-38 오른손에서 E-D-C-B로 하행하는 선

음이 있는데, 이는 마디36의 가사 verlieh'n(빛나다)의 표현을 나타내는 선율이다. 마디 36-37의 가사 Das mir ward zu solchem Glanz(이렇게 빛나는 존재가 되었으니)를 마디 38-39에서 한 번 더 반복하여 강조하고, 성악 선율에서는 마디 39에 이 곡에서 가장 높은 음인 A음을 노래하며, 반주는 호모포니적인 반주로 바뀐다. 마디 37의 가사 solchem Glanz(이렇게 빛나는)를 마디 40-41 성악선율에서 악센트를 사용하여 강조하고, 점점 느리게 연주하여 A' 부분을 마무리한다. 마무리됨과 동시에 오버랩핑(overlapping)으로 후주가 시작된다(악보 12).

<악보 12> 제11곡 '신부의 노래 I' 마디 27-41

27 *p* **A'**  
 Mut - ter, Mut - ter! seit ich ihn  
 27 *p*  
 G: I V<sub>7</sub>/V V I V

31  
 lie - be, lieb' ich erst dich ganz, daß du  
 31  
 I IV<sub>6</sub> vii<sup>o</sup><sub>7</sub>/ii ii<sub>6</sub> V<sup>4</sup><sub>3</sub>/ii ii

35  
 mir das Sein ver - lieb'n. das mir ward zu sol - chem Glanz, das mir  
 35  
 V<sup>6</sup><sub>5</sub> IV<sub>6</sub> V<sub>7</sub> vii<sup>o</sup><sub>3</sub> I<sub>6</sub> V<sup>4</sup><sub>3</sub> I IV<sub>6</sub> I<sub>4</sub><sup>6</sup>

39  
 ward zu sol - chem, sol - chem Glanz  
 39  
 vii<sup>o</sup><sub>7</sub>/V I<sub>4</sub><sup>6</sup> V<sub>7</sub> I

호모포니적인 진행으로 가사를 강조

④ 후주

9마디로 이루어진 후주에서는 으뜸화음(I), 버금딸림화음(IV), 딸림화음(V)으로만 이루어져 있다. 오른손 상성부에는 선율이 있고 내성에서는 비화성음을 자주 사용하며, 왼손에서는 화성의 색채를 채워준다. 마디 41-42 마디 43-44는 동형진행을 하고, 마디 45-46에서는 임시표 D#음, G#음, E b음을 거치며 점점 느리게 연주한다. 느려진 템포 그대로 마디 47의 Adagio에 다다른다. 마디 47의 화성은 딸림9화음(V<sub>9</sub>)을 아르페지오로 사용하여 폭넓게 진행된다. 마디 47의 선율은 전주(마디 1-2)의 리듬을 인용하고, 마디 48의 선율은 전주의 붓점리듬을 인용하여 진행한다. 마디 49에서 불완전정격중지를 하며, 왼손 베이스와 오른손 쉼표의 늘임표로 긴 여운을 남기며 곡을 마무리한다. 이 후주의 음악적 아이디어는 미르텐 《가곡집》 중 제24곡 ‘그대는 한 송이 꽃과 같네’ (*Du bist wie eine Blume*)의 후주에서 인용한다(악보 13).<sup>100)</sup>

<악보 13> 제11곡 ‘신부의 노래 I’ 마디 41-49

The musical score shows measures 41-49. Measure 41 starts with a sequence of chords: I, V<sub>7/V</sub>, V, I. Measure 42 continues the sequence. Measure 43-44 are also part of the sequence. Measure 45-46 feature a melodic line in the left hand with a 'rit.' marking. Measure 47 is marked 'Adagio' and features a V<sub>9</sub> chord. Measure 48 continues the melodic line. Measure 49 ends with a final chord (I) and a fermata. Annotations include '동형진행 (Sequence)', 'Adagio', 'rit.', and various chord symbols (I, V<sub>7/V</sub>, V, I, V<sub>9</sub>, IV, I<sub>9</sub>, (IAC)). There are also notes about borrowing rhythms from the introduction (마디 1-2).

100) Sams, *The Song of Robert Schumann*, 62.

#### 4) 제12곡 ‘신부의 노래Ⅱ’ (Lied der BrautⅡ)

##### (1) 가사<sup>101)</sup>

Lass mich ihm am Busen <u>hangen</u> ,	-en	그 사람 품에 안기게 허락해주세요,
Mutter, Mutter! lass das <u>Bangen</u> .	-en	어머니, 어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Frage nicht: Wie soll sich's <u>wenden</u> ?	-en	묻지 마세요: 어떻게 바뀔까?
Frage nicht, Wie soll das <u>enden</u> ?	-en	묻지 마세요, 어떻게 끝날까?
Enden? Enden soll sich's <u>nie</u> ,	-e	끝이요? 절대로 끝나지 않을거예요,
Wenden? noch nicht weiss ich, <u>wie</u> !	-e	변화요? 어떻게 될지 나는 아직 몰라요!

뤼케르트 「사랑의 봄」 중 여섯 번째 화환의 ‘결합’ (Verbunden)에 수록된 36번째 작품이며, 6행으로 구성되어있다. 1행부터 4행까지 각운이 같고 5행과 6행의 각 운이 동일하다.<sup>102)</sup>

이 시에서는 결혼을 앞둔 딸이 어머니에게 염려를 내려놓고, 어떤 변화가 있을지 알 수 없지만 사랑하는 사람에게 보내 주기를 바라는 염원을 보이고 있다.<sup>103)</sup>

슈만은 뤼케르트의 시를 그대로 사용하지 않고 1행의 가사 Lass mich ihm am Busen hangen(그 사람 품에 안기게 허락해주세요)을 후반부에 반복하여 확장하여,<sup>104)</sup> A-B 구성으로 작곡했다. A부분은 시의 1행부터 4행과 5행의 ‘Enden?’ 까지이다. B부분은 5행 중반부터 6행까지 노래하고, 1행과 1행의 첫 가사 ‘Lass mich!’ 까지이다. A부분에서 1행부터 4행은 4마디로 노래하고, 5행의 첫 가사 ‘Enden?’ 을 한 마디에서 노래한다. B

101) 김희열, 『가곡으로 되살아난 독일 서정시Ⅱ -뤼케르트, 피리케의 시와 연가곡, 기악가곡 및 악극 전 단계 가곡을 중심으로』, 55.

102) 김희열, 위의 책, 55.

103) 김희열, 위의 책, 55.

104) Sams, *The Song of Robert Schumann*, 62.

부분은 5행의 중간부분부터 3마디로 노래하고, 6행은 4마디로 노래한다. 반복되는 1행은 4마디로 노래하고, 1행의 첫 가사 ‘Lass mich!’ 는 한 마디에서 노래한다.

<표 13> 제 11곡 ‘신부의 노래Ⅱ’의 시와 음악의 구조

A		B	
전주	마디 1-4	5행	마디 22-24
1행	마디 5-8	6행	마디 25-28
2행	마디 9-12	1행	마디 29-32
3행	마디 13-16	간주	마디 33-35
4행	마디 17-20	1행	마디 36
5행	마디 21		

(2) 악곡분석

가곡집 《미르텐》의 12번째 곡 ‘신부의 노래Ⅱ’ (Lied der BrautⅡ)는 1840년 2월에 작곡되었고,<sup>105)</sup> A부분(마디 1-21) + B부분(마디 22-36)으로 구성되어있다. 이 곡의 조성은 G장조이며, 2/4박자이다. 지시어는 이태리어의 Larghetto(느리게)라고 표시된다. 4마디의 전주와 3마디의 간주가 있고 후주는 없다.

<표 14> 제 12곡 ‘신부의 노래Ⅱ’의 악곡 구성

부분	A	B
마디	1-21	22-36
조성	G-a-G	G
빠르기	Larghetto	
박자	2/4	

① A부분

A부분은 G장조로 시작하고, 21마디로 구성되어있으며, 4마디의 전주가 있다. 마디 1-4에서 제시되는 선율은 C음에서 D음으로 하행하며, 이 곡 전체에서 그대로 나타나거나 변형되어 발전한다.<sup>106)</sup>

선율의 리듬이 단순하며 큰 도약 없이 읊조리는 듯이 노래한다. 피아노 반주부에서는 오른손 상성부와 성악 선율이 함께 노래하여 멜로디를 부각시키고, 반주는 화성의 다양한 색채를 주어 곡의 분위기를 표현한다.

motif a가 마디 5-8에서 그대로 나타나고, 마디 9-12에서는 상행하는 선율로 변형되어 나타난다. 마디 13에서 a단조로 전조하여 불안한 심리를

105) Sams, *The Song of Robert Schumann*, 62.

106) 이를 motif a라 하겠다.

나타낸 후, motif a가 마디 13-16에서 2도 상행하여 변형된 선율을 노래하고, 그 변형된 선율은 마디 17-20은 그대로 반복된다. 20마디에서 원조인 G장조로 돌아온다. 마디 21에서는 5행의 가사 첫 부분 Enden?(끝이요?)만 가져와서 노래한 후 페르마타로 공백을 갖게 되는데, 이는 감정 표현을 위해 슈만이 의도적으로 나타낸 효과임을 알 수 있다(악보 14).

<악보 14> 제12곡 ‘신부의 노래Ⅱ’ 마디 1-21

1 [A] **Larghetto** *p* motif a 를 그대로 제시

motif a Laß mich ihm am Bu - sen

8 han - gen, Mut - ter, Mut - ter! laß — das Ban - gen Fra - ge nicht: wie

15 soll sich's wen - den? Fra - ge nicht: wie soll das en - den? **En - den?**

vi<sup>o</sup><sub>2</sub> III<sup>+</sup><sub>6</sub> i ii<sub>6</sub> i<sub>4</sub> vi<sup>o</sup><sub>2</sub> III<sup>+</sup><sub>6</sub> i **G** ii vii<sup>o</sup><sub>3</sub>/vi

motif a의 변형 motif a 2도 상행하여 진행 불안한 심리를 i<sub>6</sub> 표현 시어의 표현

## ② B부분

B부분은 15마디로 구성되어있고, A부분에 비해 선율과 피아노 반주부에서 세분화된 ♪♪ 리듬이 계속 나타난다. 마디 25-28 동안 여러 성부에서 뒤섞여 나오는데, 마디 25의 상성부에 나타났던 리듬은 다음 마디 26에서 알토 성부에 나타난다. 이어 마디 27에서 성악 선율과 반주부 왼손의 테너 성부에서 함께 노래한 후, 마디 28 피아노 반주부 알토성부에서 마무리하는데, 이는 복잡한 신부의 심리를 묘사하고 있다. 마디 25-28의 왼손 베이스는 전주에서 C음-D음으로 하행하는 모티브를 인용한 것이다.

슈만은 1행의 가사 *Lass mich ihm am Busen hange*(그 사람 품에 안기게 허락해 주세요)을 강조하기 위해 마디 29-32에서 슈만이 임의로 반복한 것으로<sup>107)</sup> 선율과 반주부가 마디 4-7와 동일하다. 마디 29-32의 선율을 마디 33-35에서 피아노가 더 고조된 감정으로 이어받아 노래하는데, 마디 34에서 이 곡에서 가장 높은 음인 G음을 노래한다. 이어 마디 36에서 성악 선율이 다시 이어받아 *Lass mich!*(허락해주세요!)를 한 번 더 얘기해 간절함을 표현한 후 곡이 마무리된다(악보 15).

---

107) Sams, *The Song of Robert Schumann*, 62.

<악보 15> 제12곡 '신부의 노래Ⅱ' 마디 21-36

21 En - den? En - den soll sich's nie, wen - den? noch nicht weiß ich, wie!

29 *p* Laß mich ihm am Bu - sen han - gen. *p rit.* laß mich!

가장 높은선율을 피아노에서 노래

여운을 남김

8분음표의 리듬이 여러성부에서 나타남 이는 신부의 불안한 심리를 표현

순만이 임의로 시의 1행을 반복

성악선율에 답하듯이

G: vii<sup>o</sup><sub>3</sub>/vi IV<sup>6</sup><sub>4</sub> V<sub>7</sub>/IV IV IV ii I -<sub>7</sub> V<sup>o</sup><sub>3</sub>/V V

V<sup>4</sup><sub>3</sub> I<sub>6</sub> ii<sup>6</sup><sub>5</sub> iii<sub>6</sub> I V<sup>6</sup><sub>5</sub>/V I<sup>6</sup><sub>4</sub> V<sub>7</sub> I (PAC)

5) 제21곡 ‘고독한 눈물은 무엇인가’ (Was will die einsame Träne)

(1) 가사<sup>108)</sup>

Was will die einsame <u>Träne</u> ?	-e	고독한 눈물은 무엇인가?
Sie trübt mir ja den <u>Blick</u> .	-k	내 시야가 흐려지네.
Sie blieb aus alten <u>Zeiten</u>	-en	이 눈물은 오래전부터 있었네
In meinem Auge <u>zurück</u> .	-k	나의 눈 속에.
Sie hatte viel leuchtende <u>Schwestern</u> ,	-n	빛나는 눈물 자매가 많았는데,
Die alle zerflossen <u>sind</u> ,	-d	모두 사라지고 말았네,
Mit meinen Qualen und <u>Freuden</u>	-n	나의 괴로움과 기쁨도 함께
Zerflossen in Nacht und <u>Wind</u> .	-d	밤과 바람에 사라졌네.
Wie Nebel sind auch <u>zerflossen</u>	-en	마치 안개처럼 사라졌네
Die blauen <u>Sternelein</u> ,	-in	푸른 작은 별들도,
Die mir jene Freuden und <u>Qualen</u>	-en	기쁨 때나 괴로울 때
Gelächelt ins Herz <u>hinein</u> .	-in	내 마음속에서 미소 짓던.
Ach, meine Liebe <u>seler</u>	-r	아, 나의 사랑이
Zerfloss wie eitel <u>Hauch</u> !	-ch	허무한 입김처럼 사라지네!
Du alte, einsame <u>Träne</u> ,	-e	그대, 오래된 고독한 눈물이여,
Zerfliesse jetzunder <u>auch</u> !	-ch	이것마저 사라져라!

하이네의 「노래의 책」 중 ‘귀향’ (Die Heimkehr)에 수록된 27번째 작품으로 4연 4행으로 구성되었으며,<sup>109)</sup> 1연과 2연 그리고 4연의 2행과 4행은 각운이 같고 1행과 3행은 유사한 형태이다. 3연의 각운은 두 행씩 쌍운을 이루고 있다. 이 시의 중심 소재는 einsame Träne(고독한 눈물)이다.

108) Heine, 『노래의 책』 (Buch der Lieder), 186~187.

109) Heine, 위의 책, 186~187.

1연에서는 눈에 고여 있는 눈물을 이야기하고, 2연과 3연에서는 과거의 흘러간 눈물에 대해서 이야기한다. 2연에서 눈물이 고여 있는 것을 leuchtende (빛나다)라고 표현하고, Schwestern(자매)으로 비유한다. 이 눈물들은 Nacht(밤)와 Wind(바람)에 모두 사라짐과 동시에 나의 Qualen(괴로움)과 Freuden(기쁨)또한 사라졌다고 말한다. 3연에서도 2연과 같은 내용으로 눈물이 Nebel(안개)처럼 사라지고, Sternlein(작은 별)도 사라졌다고 말한다. 2연과 3연에서 Qualen(괴로움)과 Freuden(기쁨)을 순서를 다르게 나열하여 두 번 이야기하여 언어의 대조를 나타내고, 음악에서도 대조성이 드러난다. 4연에서는 다시 현재로 돌아와 Liebe(사랑)가 허무하게 사라짐을 Hauch(입김)로 비유하고, 눈물만이 남은 상황이 없어지길 바라고 있다.

슈만이 이 시로 작곡할 때 의도적으로 시를 반복하거나 수정하지 않고, 시 그대로를 A-B-B' -A' 구성으로 작곡했다.<sup>110)</sup> A부분은 1연이고, B부분은 2연, B' 부분은 3연, A' 부분은 4연이다.

<표 15> 제 21곡 ‘고독한 눈물은 무엇인가’의 시와 음악의 구조

A			B		
1연	전주	마디 1	2연	1행	마디 10-11
	1행	마디 2-3		2행	마디 12-13
	2행	마디 4-5		3행	마디 14-15
	3행	마디 6-7		4행	마디 16-17
	4행	마디 8-9			
B'			A'		
3연	1행	마디 18-19	4연	1행	마디 26-27
	2행	마디 20-21		2행	마디 28-29
	3행	마디 22-23		3행	마디 30-31
	4행	마디 24-25		4행	마디 32-33
				후주	마디 33-38

110) Sams, *The Song of Robert Schumann*, 71.

(2) 악곡분석

가곡집 《미르텐》의 21번째 곡 ‘고독한 눈물은 무엇인가’ (Was will die einsame Träne)는 1840년 2월에 작곡되었고,<sup>111)</sup> A부분(마디 1-9) + B부분(마디 10-17) + B' 부분(마디 18-25) + A' 부분(마디 26-38)로 구성되어있다. 이 곡의 조성은 A장조이며, 6/8박자이다. 지시어는 독일어의 *Ziemlich langsam, mit inniger Empfindung*(매우 느리게, 내면의 감정을 가지고)이라고 표시된다. 전주와 간주는 없고 6마디로 구성된 후주가 있다.

<표 16> 제 21곡 ‘고독한 눈물은 무엇인가’의 악곡 구성

부분	A	B	B'	A'
마디	1-9	10-17	18-25	26-38
조성	A			
빠르기	<i>Ziemlich langsam, mit inniger Empfindung</i>			
박자	6/8			

① A부분

A부분은 9마디로 구성되어있고, 한 마디의 전주가 있다. A장조로 시작되며 화자가 현재의 상황을 질의문답하며 독백한다. 첫 가사가 마디 2-3에서 Was will die einsame Träne?(고독한 눈물은 무엇인가?)이라고 물음을 던진다. 이를 표현하기 위해 전주(마디 1)에서 쉼표 후 *vii<sup>o</sup>/ii*을 *sf*로 시작한다. 마디 2부터 못갓춘마디로 시작되는 성악 선율은 완전한 낭송조는 아니지만 독백하는 듯한 선율로 진행하고, 이에 피아노 반주부는 가사에 집

111) Sams, *The Song of Robert Schumann*, 71.

중될 수 있도록 박자감만 주면서 화성의 색채로 분위기를 표현하고 있다.

마디 5-7은 마디 1-3을 반복하고 마디 8-9는 마디 4-5를 변형한다. 마디 7에서는 박자감만 주고 있었던 피아노 반주가 성악 선율을 이어받아 다음 프레이즈를 연결해준다.

마디 4의 가사 ja(감탄사)를 표현하기 위해 리타르단도하며 성악 선율에서는 꾸밈음을 사용하고, 피아노 반주부 왼손에서는 아르페지오를 연주한다. 마디 8에서 Auge(눈)를 강조하기 위해 리타르단도하고, 피아노 반주부 오른손 내성에 비화성음을 사용한다. 이어 마디 9에서 A부분을 마무리한다 (악보 16).

<악보 16> 제21곡 ‘고독한 눈물은 무엇인가’ 마디 1-9

**A** Ziemlich langsam, mit inniger Empfindung

질문형을 표현 / Was will die ein-sa-me Trä-ne? sie trübt mir ja den / ja(감탄사)를 표현

반복 / 마디 3보다 움직임이 많아짐

비화성음

A: vii°/ii ii V<sub>7</sub> I vi<sub>6</sub> iii<sub>6</sub> V<sub>7</sub>/iii

iii vii°/ii ii V<sub>7</sub> I vi V<sub>4</sub><sup>6</sup> V<sub>7</sub>/V V

② B부분

8마디로 구성되어있는 B부분은 과거의 눈물에 대해서 이야기한다. 지나간 이야기를 흘러가는 듯이 표현하기 위해 마디 10-15의 성악 선율은 순차적으로 상행하며, 피아노 반주부의 왼손은 으뜸화음을 페달 포인트로 진행하고 오른손은 성악 선율과 같은 리듬을 가지고 순차적으로 상행한다. 마디 10-11과 마디 12-13는 동일한 선율을 반복하고, 마디 14-15는 4도 상행한 후 순차진행하여 Qualen(고통)과 Freuden(기쁨)의 감정을 표현한다.

마디 11와 마디 13, 마디 15에서 비화성음을 악센트로 강조한다. 마디 11과 마디 13에서는 해결되지 않은 채 진행하고, 마디 15에서는 가사 Freuden(기쁨)을 강조하기 위해 해결한다.

이후 마디 16-17의 가사 Zerfließen in Nacht und Wind(밤과 바람에 사라졌네)를 표현하기 위해 쉼표를 사용하고 a단조에서 ii°을 차용하여 공허한 분위기를 표현한 후, 마디 17에서 B부분을 마무리한다(악보 17).

<악보 17> 제21곡 ‘고독한 눈물은 무엇인가’ 마디 9-17

9 rück. Sie hat - te viel leuch - ten - de Schwe - stern, die al - le zer - flos - sen sind, mit  
상성부 선율 비화성음

14 mei - nen Qua - len und Freu - den zer - flos - sen in Nacht und Wind. Wie  
반복 공허한 느낌을 표현  
해결

A: V I I I I IV ii<sub>6</sub> ii° (B.C) V

③ B' 부분

B부분과 마찬가지로 8마디로 구성되어있고, 과거의 눈물에 대해서 이야기 한다. B' 부분은 B부분과 비교했을 때 마디 22-23이 변형된 것을 제외하고는 선율, 화성, 피아노 반주가 모두 같다. 마디 22에서는 붓점 리듬이 사라지고 8분음표로만 진행한다. 마디 23에서는 가사 Qualen(고통)을 강조하기 위해 이 곡에서 가장 높은 음인 F#음으로 노래하고 ii<sub>6</sub>을 사용한다(악보18).

<악보18> 제21곡 ‘고독한 눈물은 무엇인가’ 마디 17-25

17 Wind. Wie Ne - bel sind auch zer - flos - sen die blau - en Ster - ne - lein, die

17 A: V I I 8분음표 리듬으로 진행하여 가사를 강조

22 mir je - ne Freu - den und **시어 강조** Qua - len ge - lä - chelt ins Herz hin - ein. Ach, **해결**

22 I ii<sub>6</sub> ii<sub>6</sub> ii<sup>o</sup> V

④ A' 부분

A' 부분은 8마디로 구성되어있고, 다시 현재로 돌아와 독백한다. A부분의 마디 1-4와 A' 부분의 마디 26-28은 선율, 화성, 피아노가 모두 같지

만 가사표현의 의미는 다르다. 마디 25의 화성은 Ach!(아!)의 감탄사를 표현하며, 마디 28 성악선율의 꾸밈음과 피아노 반주 왼손 베이스의 아르페지오는 가사 eitel(허무한)을 표현한다.

마디 29의 가사 Hauch(입김)의 선율은 A부분의 마디 5와 비교했을 때, E음으로 노래한다.<sup>112)</sup> 화성은 마디 25와 같은 화성이지만 전위하여  $vii^{\circ}/ii$ 으로 진행하고, 마디 30의 성악선율은 *pp*로 노래하여 A부분과는 다른 분위기를 자아낸다. 마디 30-31의 가사 einsame Träne(고독한 눈물)를 표현하기 위해 비화성음을 사용하고, 마디 31의 리듬을 ♩ ♩에서 ♩ ♩로 변형하여 표현한다. 마디 31-33의 피아노 반주 오른손 상성부에서 클라라 주제 선율인 C#-B-G#-A의 진행이 있다. 마디 32부터 리타르단도하여 마디 33에서 A' 부분을 마무리하고, 후주가 시작된다(악보 19).

<악보 19> 제21곡 ‘고독한 눈물은 무엇인가’ 마디 25-33

Chord analysis for the piano part:

Measures 25-29: A: V,  $vii^{\circ}/ii$ , ii,  $V_7$ , I,  $vi_6$ ,  $iii_4^{\circ}$ ,  $V_7/iii$ , iii,  $vii^{\circ}/ii$

Measures 30-33:  $ii_6$ ,  $vii^{\circ}/vi$ , vi,  $V_7/ii$ ,  $ii_6$ ,  $V_7$ , I

112) Sams, *The Song of Robert Schumann*, 71.

⑤ 후주

총 6마디의 구조로 마디 33-34를 마디 35-38에 반복한다. 마디 35-38은 마디 33-34의 음역보다 한 옥타브 낮은 음역에서 반복하고 *p*에서 *pp*로 연주한다. 마디 37에서 긴 음가를 유지시켜 늘임표의 효과가 난다. 마디 33-38의 화성은 모두 V-I의 관계로 4번 반복하는데, 내성에서 반음계적 진행을 하여 지루함을 피한다. 마디 38에서 완전정격종지를 한 후 마지막 화성에서 의도적으로 불완전정격종지를 사용하여 무언가가 해소되지 않은 느낌을 주며 마무리한다(악보 20).

<악보 20> 제21곡 ‘고독한 눈물은 무엇인가’ 마디 33-38

33

33 auch!

한 옥타브 아래에서 동형진행

의도적인 불완전 정격종지

페르마타 효과

A: I V<sub>2</sub><sup>4</sup> I<sub>6</sub> 반음계적 진행 V<sub>2</sub><sup>4</sup> I<sub>6</sub> V<sub>7</sub> I (IAC)

반음계적 진행

6) 제24곡 ‘그대는 한 송이 꽃과 같네’ (Du bist wie eine Blume)

(1) 가사<sup>113)</sup>

Du bist wie eine <u>Blume</u> ,	-e	그대는 한 송이 꽃과 같네,
So hold, so schön, und <u>rein</u> ;	-in	매우 사랑스럽고, 아름답고, 순수한;
Ich schau dich an, und <u>Wehmut</u>	-t	내가 그대를 바라보면 슬픔이
Schleicht mir ins Herz <u>hinein</u> .	-in	내 마음속으로 몰래 다가오네.
Mir ist, als ob ich die <u>Hände</u>	-e	나는, 내 손을
Aufs Haupt dir legen <u>sollt</u> ;	-t	그대 머리 위에 얹고,
Betend, dass Gott dich <u>erhalte</u>	-e	기도하네, 신에게 그대를 지켜달라고
So schön so rein und <u>hold</u> .	-d	매우 아름답고, 순수하고 사랑스럽게.

이 시는 하이네의 「노래의 책」 중 ‘귀향’ (Die Heimkehr)에 수록된 47번째 작품으로, 2연 4행으로 구성되어 있다.<sup>114)</sup> 1연의 2행과 4행은 각운이 같고, 1행과 3연은 다르다. 2연의 각운은 두 행씩 쌍운이다.

이 시의 중심 소재는 Blume(꽃)으로, 사랑하는 연인을 꽃에 비유하여 고백한다. 1연에서는 꽃의 모습을 hold(사랑스러운), schön(아름다운), rein(순수한)의 형용사로 표현한다. 2연에서는 꽃의 모습을 신에게 지켜달라고 염원한다.

슈만이 이 시로 작곡할 때 의도적으로 시를 반복하거나 수정하지 않고,<sup>115)</sup> 시 그대로를 A-A' 구성으로 작곡했다.

A부분은 시의 1연이고, B부분은 2연이다. 모든 행은 2마디 단위로 노래

113) Heine, 『노래의 책』 (Buch der Lieder), 203.

114) Heine, 위의 책, 203.

115) Sams, *The Song of Robert Schumann*, 72.

한다.

<표 17> 제24곡 ‘그대는 한 송이 꽃과 같네’ 의 시와 음악의 구조

A			A'		
1연	전주	마디 1	2연	5행	마디 10-11
	1행	마디 2-3		6행	마디 12-13
	2행	마디 4-5		7행	마디 14-15
	3행	마디 6-7		8행	마디 16-17
	4행	마디 8-9		후주	마디 17-20

(2) 악곡분석

가곡집 《미르텐》의 24번째 곡 ‘그대는 한 송이 꽃과 같네’ (Du bist wie eine Blume)는 1840년 3월에 작곡되었고,<sup>116)</sup> A부분(마디 1-9) + A’부분(마디 10-20)로 구성되어있다. 이 곡의 조성은 A b 장조이며, 2/4 박자이다. 지시어는 독일어의 Langsam(느리게)이라고 표시된다. 한 마디의 전주가 있고 간주는 없으며, 4마디로 구성된 후주가 있다. 이 곡의 구조는 다음과 같다(표 18).

<표 18> 제24곡 ‘그대는 한 송이 꽃과 같네’의 악곡 구성

부분	A	A’
마디	1-9	10-20
조성	A b	
빠르기	Langsam	
박자	2/4	

① A부분

A b 장조로 시작하고 9마디로 구성되어있으며, 한 마디의 전주가 있다. 피아노 반주부 오른손에서 화음연타로 진행하고 왼손은 옥타브로 진행한다. 마디 1에서 오른손이 슬러 스타카토로 되어 있는데, 연인에 대한 설레는 마음을 표현한다.<sup>117)</sup>

마디 4를 제외하고 피아노 반주부 오른손 화음 상성부에 성악선율과 같은 멜로디가 함께 진행하여 선율을 더 부각시킨다. 마디 2-3의 가사 eine

116) Sams, *The Song of Robert Schumann*, 74.

117) 이한나, “슈만 《미르테의 꽃(Myrtten) Op.25》중 하이네의 시에 의한 예술가곡에 나타난 낭만주의적 기법 고찰,” 22.

Blume(한 송이 꽃)를 셋잇단음표로 설레는 마음을 나타내고, 전타음을 사용하여 강조한다. 이때 피아노 반주에서 크레센도와 데크레센도를 사용해 나타낸다. 마디 4-5의 가사 so hold(매우 사랑스러운)에서 성악 선율이 7도 도약하행하고, 피아노 반주부 왼손은 쉼표로 처리하여 가사를 강조한다. 마디 4의 가사 schön(아름다운)에서는 성악 선율에 꾸밈음을 사용하고, 마디 5의 rein(순수한)을 피아노 반주부 오른손에서 이어받아 반음계적으로 진행하여 흐름을 이어준다. 마디 5-6의 가사 Ich schau dich an, und Wehmut(내가 그대를 바라보면 슬픔이)의 표현을 위해 마디 6-7의 피아노 반주부 왼손에서 엇박으로 진행하여 불안함을 나타낸다. 마디 5-7 피아노 반주부 왼손에서 클라라 주제를 변형한 E $\flat$ -A $\flat$ -B $\flat$ -C $\flat$ 의 진행이 나타난다.<sup>118)</sup> 마디 7의 가사 Wehmut(슬픔)에서 성악 선율은 감5도 도약하행하고, 화성은 Ger.6/V을 사용하여 시어의 의미를 나타낸다. 마디 8-9의 가사 Schleicht mir ins Herz hinein(내 마음속으로 몰래 다가오네)을 표현하기 위해 마디 9의 피아노 반주부에서 양손 모두 밀집 화음 연타로 바뀌고, 알토와 베이스 성부에서 반음계적 진행을 한다(악보 21).

---

118) Sams, *The Song of Robert Schumann*, 74.

<악보 21> 제24곡 '그대는 한 송이 꽃과 같네' 마디 1-9

1 [A] Langsam

설레는 마음 표현 전타음으로 시어 강조

설레는 마음 표현 Du bist wie ei - ne Blu - me, so

상성부 선율로 가사를 더 부각 가사를 강조

Ab: 큰 도약과 섬표로 I ii<sup>6</sup> vii<sup>6</sup>/ii ii

4 시어를 강조 시어를 꾸밈음으로 표현

hold und schön und rein: 가사를 이어받아 반음계적으로 진행 ich schau dich an, und

V<sub>2</sub><sup>4</sup> I<sub>6</sub> -<sup>5</sup> V I V<sub>3</sub><sup>4</sup>

7 감5도 도약하행 Eb-Ab-Bb-Cb

Weh - mut schleicht mir ins Herz hin - ein Mir

선율의 도약과 화성으로 시어를 표현

알토와 베이스성부의 반음계적 진행으로 가사를 표현

Ger.6/V V<sub>4</sub><sup>6</sup> V<sub>7</sub> I

② A' 부분

A' 부분은 8마디로 구성되어있다. 마디 1-5와 마디 9-13의 선율과 화성진행이 모두 같지만, 피아노 반주부는 양손 모두 화음연타로 진행한다. 마디 13에서 크레센도와 함께 반음계 진행을 하며 리타르단도하여 다음 마디를 기대하는 효과를 준다.

마디 14의 성악 선율에서 Gott(신)에서만 F음으로 노래하고, 그 외의 가사는 C음으로 노래하여 신을 높인다. 마디 14-15의 가사 *Betend, dass Gott dich erhalte*(기도하네, 신에게 그대를 지켜달라고)의 반주에서는 호모포니적인 화성진행을 하여 가사를 강조한다. 마디 15의 중반부터 마디 14-15의 성악 선율을 피아노 반주부 오른손에서 카논(Canon)기법으로 모방하여 간절함을 표현하는데,<sup>119)</sup> 이 때 이 곡에서 가장 높은 음역인 A $\flat$ 음으로 노래한다.

마디 16-17의 가사 *So schön so rein und hold*(매우 아름답고 순수하고 사랑스럽게)의 의미를 더 높이기 위해 피아노 반주부 오른손 상성부에서 가곡집 《미르텐》 중 제1곡 ‘헌정’ (*Widmung*)의 가사 *Mein guter Geist, mein bess' res Ich!*(나의 선한 영혼, 나보다 더욱 선한 나!)의 멜로디를 인용하여 사용한다.<sup>120)</sup> 마디 17에서 노래가 끝나자마자 오버랩핑으로 후주가 시작된다(악보 22).

---

119) Sams, *The Song of Robert Schumann*, 75.

120) Sams, 위의 책, 74.

<악보 22> 제24곡 '그대는 한 송이 꽃과 같네' 마디 9-17

9 *p* [A']  
 ein Mir ist, als ob ich die Hän - de aufs  
 9  
 Ab:  $V_7$  I  $ii_6$   $V_7/ii$   $ii$   
 양손이 모두 밀집된 화음연타.  $ritard.$ 와  $cresc.$ 로 흐름의 전환 시어의 의미를 높여서 강조  
 12 Haupt dir le - gen sollt', be - tend, daß [Gott] dich er -  
 12  
 $V_2^4$   $I_6$   $-5_3$   $V$   $-7$  I  $V_7/ii$   
 호모포니 반주진행으로 가사를 강조  
 Canon기법으로 모방하여 표현 제 1곡 '헌정'(Widmung)의  $rit.$  Mein guter Geist, mein bess'res Ich!의 선율을 인용  
 15 hal - te so rein und schön und hold. 오버랩핑으로 후주 시작  
 가장 높은 음  $p$   
 15  $ii$  I IV  $ii_6$   $rit. I_6^4$   $V_7$  I

③ 후주

후주는 4마디로 구성되어있다. 오른손에서는 화음 연타로 진행되는 동시에 상성부에 선율이 있다. 이 선율은 제11곡 ‘신부의 노래 I’ (Lied der Braut I)의 후주에서 연속적인 붓점리듬의 음악적 아이디어를 인용하고 있으며,<sup>121)</sup> 선행음과 꾸밈음을 자주 사용한다. 왼손은 옥타브 진행을 하는데, 이 곡에서 가장 긴 슬러(Slur)로 되어있다. 마디 17 오른손의 음역이 낮은 음자리표에서 마디 18 중반부에서 높은음자리표로 점차적으로 이동하는데, 이는 신에게 닿길 바라는 마음을 표현한다. 마디 19부터 리타르단도하여 마디 20의 꾸밈음이 곡을 끝내기 아쉬운 분위기를 자아내며 마무리한다(악보 23).

<악보 23> 제24곡 ‘그대는 한 송이 꽃과 같아’ 마디 17-20

제 11곡 '신부의 노래 I'(Lied der Braut I)의 후주에서 인용

hold. 선행음 꾸밈음으로 아쉬움 표현 ritar - - dan - - do

Ab: I vii°<sub>5</sub>/vi V<sub>3</sub><sup>4</sup> V<sub>7</sub>/vi V<sub>3</sub><sup>4</sup> vi<sub>6</sub> ii<sub>6</sub> V<sub>7</sub> I

121) Sams, *The Song of Robert Schumann*, 62.

7) 제25곡 ‘동쪽의 장미로부터’ (Aus den östlichen Rosen)

(1) 가사<sup>122)</sup>

Ich sende einen Gruss wie Duft der Rosen, -en  
Ich send' ihn an ein Rosenangesicht. -t  
Ich sende einen Gruss wie Frühlingskosen, -en  
Ich send' ihn an ein Aug' voll Frühlingslicht. -t  
Aus Schmerzensstürmen, die mein Herz durchtosen, -en  
Send' ich den Hauch, dich unsanft rühr' er nicht! -t  
Wenn du gedenkest an den Freudelosen, -en  
So wird der Himmel meiner Nächte licht. -t

나는 장미 향기와 같은 인사를 보낸다,  
장밋빛 얼굴로 보낸다.  
나는 봄의 애무 같은 인사를 보낸다,  
봄빛 가득한 눈으로 보낸다.  
고뇌의 폭풍우로부터, 소용돌이치는 내 마음,  
나는 한숨을 보낸다, 당신에게 거칠지 않도록!  
당신이 기쁨 잃은 나를 생각할 때,  
나의 밤하늘은 빛나리.

뤼케르트의 「동방의 장미」 중 ‘멀리 있는 연인에게 보내는 인사’ 에  
곡을 붙였으며, 8행으로 구성되어있고,<sup>123)</sup> 각운이 두 행씩 쌍운이다.

이 시는 멀리 있는 연인을 그리워하며 마음이 전달되기를 바라는 내용이

122) 김희열, 『가곡으로 되살아난 독일 서정시Ⅱ -뤼케르트, 뫼리케의 시와 연가곡, 기악  
가곡 및 악극 전 단계 가곡을 중심으로』, 55~56.

123) 김희열, 위의 책, 55.

다. 1행에서 4행은 장미향기와 봄의 애무와 같은 인사 전할 때, 수줍어하는 마음을 Rosenangesicht(장밋빛 얼굴)로 비유하고, 사랑의 열정이 가득한 마음은 Aug' voll Frühlingslicht(봄빛 가득한 눈)으로 표현한다. 5행에서 8행은 사랑하는 마음만이 다가 아니라 고뇌와 소용돌이치는 마음이 공존하지만, 그녀가 나를 생각해준다면 밤하늘도 빛을 발할 것이라고 노래하고 있다.<sup>124)</sup>

슈만은 뤼케르트의 시를 그대로 사용하지 않고, 8행의 가사 So wird der Himmel meiner Nächte licht(나의 밤하늘은 빛나리)를 한 번 더 반복하여,<sup>125)</sup> A-B 구성으로 작곡했다. A부분은 시의 1행부터 4행까지이고, B부분은 시의 5행부터 7행까지와 두 번 반복되는 8행이다. 모든 행은 3마디 단위로 노래한다.

<표 19> 제25곡 ‘동쪽의 장미로부터’의 시와 음악의 구조

A		B	
전주	마디 1	5행	마디 18-20
1행	마디 2-4	간주	마디 21
간주	마디 5	6행	마디 22-24
2행	마디 6-8	간주	마디 25
간주	마디 9	7행	마디 26-28
3행	마디 10-12	간주	마디 29
간주	마디 13	8행	마디 30-36
4행	마디 14-16	후주	마디 36-39
간주	마디 17		

124) 김희열, 『가곡으로 되살아난 독일 서정시Ⅱ - 뤼케르트, 뫼리케의 시와 연가곡, 기악가곡 및 약극 전 단계 가곡을 중심으로』, 56.

125) Sams, *The Song of Robert Schumann*, 62.

(2) 악곡분석

가곡집 《미르텐》의 25번째 곡 ‘동쪽의 장미로부터’ (Aus den östlichen Rosen)는 1840년 4월에 작곡되었고,<sup>126)</sup> A부분(마디 1-17) + B부분(마디 18-39)로 구성되어있다. 이 곡의 조성은 E b 장조이며, 2/4박자이다. 지시어는 독일어의 Ruhig, zart(잔잔한, 상냥한)라고 표시된다. 이 작품의 원고의 여백에 ‘In Erwartung Claras’ (클라라를 기다리며)라고 적혀있다. 한 마디의 전주가 있고, 각 행 사이마다 한 마디의 짧은 간주가 있으며, 4마디의 후주가 있다.

<표 20> 제25곡 ‘동쪽의 장미로부터’의 악곡 구성

부분	A	B
마디	1-17	18-39
조성	E b -g-c	c-E b
빠르기	Ruhig, zart	
박자	2/4	

① A부분

A부분은 17마디로 구성되어있으며, 한 마디의 전주가 있고, E b 장조로 시작한다. 각 행마다 성악 선율이 3마디씩 노래하고, 그 선율을 피아노 반주부가 이어받아서 1마디를 노래하는 구조이다.

전주(마디 1)에서 왼손은 쉼표 후 B b 음-G음으로 급격히 6도 상행한 후, 이어서 분산화음으로 하행하는데, 이는 4월의 바람을 연상한다. 성악 선

126) Sams, *The Song of Robert Schumann*, 75.

율은 단순하며 ♩ 리듬이 특징적이고, 피아노 반주부에서는 아치형의 분산화음 형태로 음악이 부드러우면서도 가볍고 빠르다.<sup>127)</sup>

각 행마다 sende(보내다)의 표현을 위해 마디 4, 마디 8, 마디 12, 마디 14의 피아노 반주부 오른손에서 성악 선율을 이어받아 바람이 보내는 것을 연상하며 노래한다. 마디 14에서 g단조로 전조하여 가사 ein Aug' voll Frühlingslicht(봄빛 가득한 눈)의 색채를 표현한다. 이어 마디 16-17에서 c단조로 전조한 후, 피아노 반주부 오른손 내성의 D-E<sup>b</sup>-F 선율이 내면의 감정을 표현하고, B부분에서 전개될 분위기와 이야기를 예시하며 A부분을 마무리한다(악보 24).

---

127) Sams, *The Song of Robert Schumann*, 75.

<악보 24> 제25곡 '동쪽의 장미로부터' 마디 1-17

*Ruhig, zart* *p* 바람에 날리는 듯한 리듬이 특징

Ich sen - de ei - nen Gruß wie Duft der Ro - sen,

6도 도약 *p* Eb: I *pedal* V<sub>5</sub><sup>6</sup> I V<sub>5</sub><sup>6</sup>/ii ii vii<sup>o</sup>/ii

4월의 바람을 연상 아치형 분산화음 sende(보내다)의 표현을 바람을 연상하여 나타낸다

5 ich send' ihn an ein Ro - sen-an - ge - sicht, ich

ii V<sub>5</sub><sup>6</sup> I IV<sub>5</sub><sup>6</sup> V<sub>5</sub><sup>6</sup> V<sub>5</sub><sup>6</sup>/vi vi V<sub>7</sub>/V V -

10 sen - de ei - nen Gruß wie Früh - lings - ko - sen, ich

I V<sub>5</sub><sup>6</sup> I V<sub>5</sub><sup>6</sup>/ii ii vii<sup>o</sup>/ii ii V<sub>5</sub><sup>6</sup>

14 send' ihn an - ein Aug' voll Früh - lings - licht, Aus

*rit.* 내면의 감정을 표현하며 이야기의 전환을 예상할수있다

*rit.* 전조하여 분위기를 표현

(g:) VI iv i V<sub>7</sub> i c: i IV<sub>6</sub> V<sub>3</sub><sup>4</sup>

## ② B부분

B부분은 c단조로 시작하고, 19마디로 구성되어있다. 마디 18의 가사 Schmerzensstürmen(고뇌의 폭풍우)에서 나타난 반주부 오른손 상성부의 F-A $\flat$ -G를 마디 20에서 한 번 더 노래하여 고뇌하는 마음을 표현한다.

마디 22의 가사 Hauch(한숨)을 피아노 반주 오른손 상성부의 D-A $\flat$ -G로 표현한다. 마디 24의 가사 unsanft rühr' er nicht!(거칠지 않도록!)를 E $\flat$  장조로 전조하여 밝은 분위기로 나타내고, V<sub>9</sub> 화성으로 폭넓게 표현한다. 이후 마디 24-25 오른손 내성에서 F-F $\sharp$ -G-A $\flat$ 의 반음계 선율을 노래하여 고조된 감정을 표현한다.

마디 30-32의 가사 So wird der Himmel meiner Nächte licht(나의 밤하늘은 빛나리)를 새로운 멜로디로 하행하며 노래하고, 마디 32에서 피아노 오른손 상성부가 이어받아 클라라 주제를 변형하여 인용한 C-B $\flat$ -A $\flat$ -G-F 선율로 노래한다.<sup>128)</sup> 이 선율은 급격한 7도 상행 후 하행하는 전주와 비슷한 유형이다. 마디 32-33의 피아노 선율이 끝나기도 전에 스트레토(stretto) 기법으로 마디 33-36에서 성악 선율이 이어받아 반음계적으로 상행하여 시의 8행을 한 번 더 노래한다. 이때 Himmel(하늘)을 강조하기 위해 마디 30에서는 a $\flat$  단조의 i를 차용하여 강조하고, 마디 33에서 8행의 가사 중 so wird der를 못갓춘마디로 배치하여 마디 34 Himmel(하늘)에서 아치형 분산화음의 반주로 가사를 부각시켰다. 마디 35-36에서 리타르단도하고, 후주가 오버랩핑으로 시작된다(악보 25).

---

128) Sams, *The Song of Robert Schumann*, 75.

<악보 25> 제25곡 '동쪽의 장미로부터' 마디 17-36

17 B

17 Aus Schmer - zensstür - men, die mein Herz durch - to - sen, 시어를 표현

22 *rit.* 내면의 감정을 표현하고 이야기의 전환을 예상할수있다. **p**

22 send' ich den Hauch, dich in - sanft rühr - er nicht! Wenn du ge - den - kest 시어를 표현 가사를 표현 *rit.*

27 an den Freu - de - lo - sen, so wird der Him - mel mei - ner Näch - te 시어를 표현

32 클라라 주제를 인용 C-Bb-Ab-G-F *rit.* Stretto 기법 반주형 변화로 시어를 부각 오버랩핑으로 후주시작

32 licht, so wird der Him - mel mei - ner Näch - te licht.

Chord symbols:  $iV_6$ ,  $V_3^4$ ,  $i$ ,  $vii_7^o$ ,  $i$ ,  $V_2^4$ ,  $i_6$ ,  $vii_5^o$ ,  $i$ ,  $V_5^6$ ,  $i$ ,  $vii_3^o$ ,  $i_6$ ,  $V_9/V$ ,  $V_7$ ,  $I$ ,  $V_5^6/ii$ ,  $ii$ ,  $vii_7^o/ii$ ,  $ii$ ,  $V_5^6/IV$ ,  $IV$ ,  $i$  (B.C),  $I_4^6$ ,  $V_2^4$ ,  $V_5^6/IV$ ,  $IV$ ,  $V_7/ii$ ,  $ii$ ,  $I_4^6$ ,  $vii_3^o/iii$ ,  $I_4^6$ ,  $V_7$ ,  $V_7/IV$

③ 후주

4마디로 구성된 후주는 마디 32-33에서 제시된 클라라 주제를 인용한 선율을 한 옥타브 아래에서 노래한다. 고조되었던 감정을 차분히 내려놓고 리타르단도하여 마무리한다. 마디 38-39는 전주(마디 1)에서 제시되었던 왼손의 음형에 오른손 셋잇단음표를 상행하여 가볍게 마무리한다. 마디 38-39 또한 4월의 바람을 연상한다(악보 26).<sup>129)</sup>

<악보 26> 제25곡 ‘동쪽의 장미로부터’ 마디 36-39

36                      마디 32-33의 클라라 주제를 한 옥타브 아래에서 노래

36                      4월의 바람을 연상

licht.                      rit.                      상행

36                      3

E♭:                      V<sub>7</sub>/IV                      IV                      V<sub>7</sub>/V                      I<sub>4</sub><sup>6</sup>                      V<sub>7</sub>                      I

129) Sams, *The Song of Robert Schumann*, 75.

8) 제26곡 ‘끝맺음’ (Zum Schluss)

(1) 가사<sup>130)</sup>

Hier in diesen erdbeklommenen <u>Lüften</u> ,	-en
Wo die Wehmut <u>taut</u> ,	-t
Hab' ich dir den unvollkommenen Kranz <u>geflochten</u> ,	-en
Schwester, <u>Braut</u> !	-t
Wenn uns, droben <u>aufgenommen</u> ,	-en
Gottes Sonn' <u>entgegenschaut</u> ,	-t
Wird die Liebe den vollkommenen Kranz uns <u>flechten</u> ,	-en
Schwester, <u>Braut</u> !	-t

여기 지상의 무더운 미풍에,  
고통이 녹아 있네,  
나 당신을 위해 불완전한 화환을 엮었소,  
누이여, 신부여!  
우리 천상에 올라,  
신의 아들을 마주보게 되면,  
사랑이 우리를 위해 완전한 화환을 엮어주리,  
누이여, 신부여!

뤼케르트의 「사랑의 봄」 중 첫 번째 화환 ‘각성’ (Erwacht)에 수록된 65번째 작품으로 8행으로 구성되어있고,<sup>131)</sup> 각운이 두 행씩 쌍운이다.

이 시는 종결짓는 제목으로 첫 곡의 ‘헌정’ 과 서로 대응관계이다. 이는

---

130) 김희열, 『가곡으로 되살아난 독일 서정시Ⅱ -뤼케르트, 뫼리케의 시와 연가곡, 기악가곡 및 약극 전 단계 가곡을 중심으로』, 56.

131) 김희열, 위의 책, 56.

슈만이 의도성이 보이는 것으로, 첫 곡에서 고백한 신부에 대한 사랑을 완성하고픈 그의 염원에서 비롯된 것이다.<sup>132)</sup> 3행의 시어 unvollkommenen Kranz(불완전한 화환)이 6행의 Gottes Sonn'(하나님의 아들)의 언급으로 인해 7행에서 vollkommenen Kranz(완전한 화환)로 거듭난다.

슈만은 5행의 가사 'aufgenomm'nen' 을 'aufgenommen' 으로 수정했고, 반복하여 확장하지 않았다.<sup>133)</sup> 이 시를 A-B 구성으로 작곡했으며, A부분은 시의 1행부터 4행이고, B부분은 5행부터 8행까지다. A부분에서 시의 1행과 3행은 3마디로 노래하고, 2행과 4행은 한 마디에서 노래한다. B부분에서는 5행과 6행을 2마디 단위로 노래하고, 7행은 3마디로, 8행은 한 마디에서 노래한다.

<표 21> 제26곡 '끝맺음' 의 시와 음악의 구조

A		B	
1행	마디 1-3	5행	마디 9-10
2행	마디 4	6행	마디 11-12
3행	마디 5-7	7행	마디 13-15
4행	마디 8	8행	마디 16
		후주	마디 17-20

132) 지형주, “구월의 신부를 위한 노래 <미르텐 Myrten>에 담겨있는 슈만의 낭만성,” 34.

133) Sams, *The Song of Robert Schumann*, 76.

(2) 악곡분석

가곡집 《미르텐》의 마지막 곡 ‘끝맺음’ (Zum Schluss)는 1840년 3월에 작곡되었고,<sup>134)</sup> A부분(마디 1-8) + B부분(마디 9-21)로 구성되어 있다. 이 곡의 조성은 A b 장조이며, 4/4박자이다. 지시어는 이탈리아어의 Adagio(느리게)라고 표시된다. 전주와 간주는 없고, 5마디의 후주가 있다.

<표 22> 제26곡 ‘끝맺음’의 악곡 구성

부분	A	B
마디	1-8	9-21
조성	A b	A b - G b - A b
빠르기	Adagio	
박자	4/4	

① A부분

8마디로 구성된 A부분은 A b 장조로 시작된다. 성악 선율은 리듬이 단순하며 큰 도약 없이 읊조리는 듯한 선율로 노래하고, 피아노 반주부에서는 호모포니적인 진행을 하며 화성의 변화로 곡의 흥미를 유발한다.

마디 4의 가사 Wehmut taut(슬픔이 녹아있네)를 제외하고 피아노 반주부 오른손의 상성부와 성악 선율이 함께 노래하여 선율과 가사를 부각시킨다. 마디 6의 가사 unvollkomm'nen(불완전한)의 성악 선율에서 가곡집 《미르텐》 중 제1곡 ‘헌정’ (Widmung)의 마지막 가사 Mein guter Geist, mein bess' res Ich!(나의 선한 영혼, 나보다 더욱 선한 나!)의 선율을 인용하여 F-D b -B b -A b로 진행하며,<sup>135)</sup> 반주부에서는 minor의 색채를

134) Sams, *The Song of Robert Schumann*, 76.

135) Sams, 위의 책, 76.

가진 화성을 사용한다.

A부분 피아노 반주부는 슬러 스타카토 부분과 슬러 부분이 있다. 슬러 스타카토는 가볍게 연주하고 슬러 부분은 단어의 뉘앙스를 표현하는데, 이는 가사의 표현을 위해 슈만이 의도적으로 나타낸 것이다. 마디 2와 마디 4, 마디 8에서는 양손 모두 슬러를 사용하고, 마디 6에서는 오른손에서만 사용하며 마디 7에서는 왼손에서만 사용한다. 이어 마디 8의 겹세로줄로 인해 A부분이 마무리됨을 알 수 있다(악보 27).

<악보 27> 제26곡 ‘끝맺음’ 마디 1-8

1 **A** **Adagio** 상성부 선율로 가사를 더 부각시킵니다

Hier in die-sen erd - beklomm'nen Lüf - ten, wo - die Weh-mut taut,

내성부 선율

5 hab ich dir den un - vollkomm'nen Kranz ge - floch - ten, [Schwe-ster, Braut!]

부분슬러를 사용하여 시어를 강조

Ab: I V<sub>3</sub><sup>4</sup> I V<sub>3</sub><sup>4</sup>/V I<sub>4</sub><sup>6</sup> V

ii V<sub>5</sub><sup>6</sup>/ii ii ii<sub>6</sub><sup>6</sup> (B.C) I<sub>4</sub><sup>6</sup> V<sub>3</sub><sup>4</sup>/V V<sub>7</sub> I

화성의 색채로 unvollkomm'nen(불완전한) 시어를 표현  
제 1곡 헌정 (Widmung)의  
Mein guter Geist, mein bess'res Ich!의 선율을 인용

② B부분

8마디로 구성된 B부분은 선율에서 새로운 리듬 형태로 전개하며, 피아노 반주부는 슬러 스타카토가 없어지고 왼손이 옥타브로 바뀌어 더 풍부한 화성의 색채를 느끼게 한다.

마디 9-10의 가사 Wenn uns, droben aufgenommen(우리 천상에 올라)에서 cresc.로 방향성을 주어 가사를 표현한다. 마디 11-12의 가사 Gottes Sonn' entgegenschaut(신의 태양을 마주할 때)에서 Gb 장조로 전조하여 분위기를 전환하고, 반주에서 2분음표 단위로 화성을 채워주며, ritard. 하여 가사를 강조한다. 이어 마디 13부터 원 조인 Ab 장조로 돌아와 진행한다. 마디 13-14의 가사에서 Liebe(사랑)에 대한 언급으로 인해 노래 선율에서 새로운 리듬이 나오고 마디 15-16에서 성악 선율과 반주가 만난 후 후주가 시작된다(악보 28).

<악보 28> 제26곡 '끝맺음' 마디 9-16

9 **B** 새로운 리듬형 Wenn uns, dro - ben auf - ge - nom - men, ritar - - dan - - do  
 시어를 표현  
 가사를 강조  
 Ab: V V<sub>7</sub>/ii ii

13 새로운 리듬형 조성의 변화로 분위기 전환 가사를 강조  
 wird die Lie - be den voll - komm'nen Kranz uns flech - ten, Schwe - ster, Braut!  
 선율과 피아노가 만남  
 p  
 Ab: V<sub>3</sub><sup>4</sup> I<sub>6</sub> V<sub>2</sub><sup>4</sup> I<sub>6</sub> IV V<sub>7</sub> I

③ 후주

5마디로 구성된 후주는 B부분의 마디 13-16을 그대로 노래한다. *pp* 로 연주하여 잔잔하게 여운을 남기며 마디 17-18의 상성부 ♩♪♪ 리듬에서 크레센도와 데크레센도로 감정을 나타낸다. 마디 19에서 클라라 선율을 인용한 C-B♭-G-A♭의 진행과 내성의 반음계 진행으로 마지막까지 클라라에 대한 사랑을 표현한다. 마디 20-21에서 겹점음표와 늘임표로 길게 지속한 후 쉼표로 여운을 가지며 끝난다(악보 29).

<악보 29> 제26곡 ‘끝맺음’ 마디 17-21

후주 5마디 전체가 마디 13-16을 반복

클라라 주제를 인용  
C-B♭-G-A♭

반음계 진행

길게 지속하여  
여운을 남김

감정을 표현

곡의 여운  
(PAC)

Ab: V<sub>3</sub><sup>4</sup> I<sub>6</sub> V<sub>2</sub><sup>4</sup> I<sub>6</sub> IV V<sub>7/V</sub> V<sub>7</sub> I

### III. 결론

슈만은 사랑하는 연인인 클라라와 결혼하는 해인 1840년, 한 해 동안 140여곡에 달하는 가곡을 작곡했다. 그 해에 작곡된 대표적인 작품 중 가곡집 《미르텐》은 1840년 2월부터 4월 사이에 작곡한 것으로 클라라에게 결혼식 전날 헌정한 작품이다. 26곡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9명의 시인의 작품을 발췌하여 가사로 사용하였다.

언어와 음은 별개가 아니라 하나라고 생각했던 슈만의 아이디어를 그의 가곡집 《미르텐》을 통해서 알아보려고 하였고, 그 중에서도 뤼케르트와 하이네의 시를 중심으로 분석 연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제 1곡 ‘헌정’ (*Widmung*)은 뤼케르트의 시를 발췌한 곡으로, A-B-A'로 구성되어있고, A b 장조이다. 슈만은 8행의 시를 곡의 후반부에 임의로 반복하여 확장하였다. 사랑에 대한 감정표현으로 긍정적인 뜻의 단어에서는 도약상행하고, 부정적인 뜻의 단어에서는 순차하행하여 나타낸다. 피아노 반주부에서 외성부는 긴 음가로 지속하고, 내성부에서 아치형의 분산화음으로 진행하여 내면의 생동감을 표현한다. 곡의 중반부에서 갑자기 E장조로 이명동음 전조하여 음악이 이어진다. 진지하고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낮은 음역의 선율이 노래하고, 오른손의 셋잇단음표에서는 생동감을 지속시킨다.

제 7곡 ‘연꽃’ (*Die Lotosblume*)은 하이네의 시를 발췌한 곡으로, A-B-C로 구성되어있고, F장조이다. 연꽃을 이야기하는 부분에서는 F장조를 사용하고, 달이 등장했을 때에는 A b 장조를 사용하여 분위기를 전환시킨다. 피아노 반주에서 오른손 화성의 슬러 스타카토가 물에 떠있는 연꽃을 연상한다. 달의 등장으로 피아노 반주부의 모든 성부가 높은음자리표 음역에서 진행하며, 오른손 화음의 상성부가 노래 선율보다 더 높은 음역에 위치하여 밤하늘에 떠있는 달의 모습을 형상화한다. 연꽃의 고조된 감정 표현을 위해

조성은 B♭ 장조로 진행하고, 선율은 점차 상행하며, 지시어 점점 빠르게 (nach und nach schneller)로 나타낸다.

제 11곡 ‘신부의 노래 I’ (*Lied der Braut I*)과 제 12곡 ‘신부의 노래 II’ (*Lied der Braut II*)는 뤼케르트의 시를 발췌한 곡으로, 슈만 본인이 신부의 입장을 상상하며 작곡한 곡이다. 제 11곡 ‘신부의 노래 I’ (*Lied der Braut I*)은 A-B-A’로 구성되어있고, G장조이다. 시의 감정에 따라 선율의 리듬을 확대하거나 축소하여 표현한다. 피아노 반주부에서 오른손의 한 옥타브 이상의 급격한 도약과 왼손의 화성 진행은 흥분되는 감정을 표현하며, 갑작스런 호모포니적 반주 유형의 변화는 가사를 효과적으로 부각시킨다.

제 12곡 ‘신부의 노래 II’ (*Lied der Braut II*)는 A-B로 구성되어있고, G장조이다. 전주에서 제시된 선율과 반주유형을 그대로 사용하거나 변형하여 진행한다. 의문문의 가사는 a단조의 전조로 불안한 심리를 나타낸다. 시의 5행의 가사 중 끝이라고요?(Enden?)을 기준으로 A부분과 B부분이 나뉘어서 노래한다. 이 가사의 뜻은 늘임표로 인한 생겨난 찰나의 공백으로 불안한 감정이 극대화되어 표현된다. 후반부에 슈만이 임의로 가사를 반복하여 노래한 후, 피아노가 이어받아 가장 높은 음역으로 노래하며 끝난다.

제 21곡 ‘고독한 눈물은 무엇을 원하는가’ (*Was will die einsame Träne*)는 하이네의 시를 발췌한 곡으로, A-B-B’-A’로 구성되어있고, A장조이다. A부분 피아노 반주부에서 질문형의 가사를 감7화음을 *sf*로 시 작하여 나타낸다. 고독한 눈물(einsame Träne)에 대한 표현을 비화성음을 사용하여 불안정한 마음을 표현한다. 곡의 중반부에서 과거의 눈물에 대해 이야기하는데, 선율과 반주부에서 순차적으로 흘러가듯이 진행되는 형태이고, 화성은 불협화음을 해결하지 않고 길게 유지한 후 해결한다. 또한 기쁨(Freuden)과 고통(Qualen)에 서로 다른 화성을 사용하여 대조되는 시어의

의미를 표현한다. 후주에서는 V-I로만 진행하여 불안정한 감정이 해소되는 느낌이 드는데, 마지막 종지를 불완전정격종지를 하여 반전을 선사한다.

제 24곡 ‘그대는 한 송이 꽃과 같네’ (*Du bist wie eine Blume*)는 하이네의 시를 발췌한 곡으로, A-A’로 구성되어있고, A b 장조이다. 시어의 표현에서 셋잇단음표나 꾸밈음을 사용하여 설레는 마음을 표현하고, 꽃과 꽃에 대한 형용사는 선율에서 큰 도약진행과 비화성음을 사용하여 표현한다. 신(Gott)의 언급에 있어서 반주는 호모포니로 진행하여 가사와 선율을 강조하고, 그 선율을 카논기법으로 피아노 오른손에서 모방하여 더 높은 음역에서 노래하며 기도하는 간절한 마음을 표현한다.

제 25곡 ‘동쪽의 장미로부터’ (*Aus den östlichen Rosen*)는 뤼케르트의 시를 발췌한 곡으로, A-B로 구성되어있고, E b 장조이다. 전주와 후주의 분산화음은 4월의 바람을 연상한다. 성악 선율이 끝나자마자 피아노 오른손 외성부의 짧은 선율 또한 바람을 연상하며 멀리 있는 연인에게 전달하고 싶은 마음을 표현하고, 내성의 선율은 내면의 감정을 표현한다. 시어 하늘(Himmel)의 언급으로 피아노 오른손에서 클라라 주제의 선율이 성악 선율보다 높은 음역에서 바람을 연상하며 노래하고, 이 선율은 후주에서도 이어지며 클라라를 그리는 마음을 표현한다.

제 26곡 ‘끝맺음’ (*Zum Schluss*)은 뤼케르트의 시를 발췌한 곡으로, A-B로 구성되어있고, A b 장조이다. 진지하고 슈만의 염원이 담긴 곡으로 성악 선율과 피아노 반주부 오른손 화음의 상성부가 동일한 리듬과 선율이 고, 반주의 호모포니적인 진행으로 성악 선율과 가사를 부각시킨다. 신(Gott)의 언급으로 조성은 G b 장조로 전조하여 신비한 분위기를 나타내고, 반주는 리듬을 확장하여 가사를 강조한다. 시의 마지막 행의 멜로디를 후주에 그대로 반복하여 그 가사의 의미를 마음속 깊이 새길 수 있도록 한다.

슈만은 자신과 로맨티스트적인 면모가 닮은 뤼케르트의 시 그리고 사랑에

대한 이중적인 면모에 깊은 공감을 했던 하이네의 시를 가곡 작곡에 사용하여 클라라에 대한 사랑을 고백하고 표현하였다. 그는 클라라와의 사랑이 행복하기도 했지만, 불안함 또한 항상 공존했고, 이러한 심리가 작품 속에 그대로 묻어난다. 곡의 곳곳에서 클라라 주제를 사용하여 사랑을 속삭였고, 시어의 의미와 감정 표현을 선율과 화성, 리듬, 피아노 반주를 통해 다양하게 나타냈다.

슈만은 시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다양한 음악적 기법을 사용하여 모든 작품 속에서 감정을 표현했고, 결국 문학과 음악이 하나가 되는 슈만의 독자적인 가곡세계를 구축하게 되었다.

## 참 고 문 헌

### <국내저서>

- 김광규. 『19세기의 독일시』. 서울: 탐구당, 1980.
- 김희열. 『가곡으로 되살아난 독일 서정시Ⅱ -뤼케르트, 뢰리케의 시와 연가곡, 기악 가곡 및 악극 전 단계 가곡을 중심으로』. 파주: (주)지식산업사, 2015.
- 문학수. 『더 클래식 들. 슈베르트에서 브람스까지』. 파주: 돌베개, 2015.
- 음악지우사(편). 『작곡가별 명곡해설 라이브러리 슈만』. 서울: 음악세계, 2003.
- 이경숙. 『예술가곡의 이해』. 서울: 도서출판 선우 미디어, 2003.
- . 『말러와 그의 가곡』. 서울: 도서출판 삶과 꿈, 2002.
- 이창복. 『문학과 음악의 황홀한 만남: 중세 연애시부터 현대 희곡까지, 음악과의 만남으로 탄생한 독일 문학 이야기』. 파주: 김영사, 2011.
- 진희숙(편). 『음악사를 움직인 100인』. 파주: 청아 출판사, 2013.
- 최상안. 『하이네 회상록』. 마산: 경남대학교 출판부, 1997.
- 피중호(편). 『아름다운 독일 連歌曲』. 고양: 도서출판 자작나무, 1999.
- 홍세원. 『낭만과 음악』. 서울: 연세대학교 출판사, 2010.

### <외국저서 및 번역서>

- Finck, Henry T. 『歌曲의 歷史와 作曲家』 (Song and Song-Writers). 대학음악 저작연구회 번역, 서울: 삼호출판사, 1990.
- Heine, Heinrich. 『노래의 책』 (Buch der Lieder), 김재혁 번역, 서울: 문학과 지성사, 2001.
- Kimball, Carol. *Song* (하권). 채은희 번역, 서울: 형설, 2007.

Sams, Eric. *The Song of Robert Schumann*. London; Boston: faber and faber, (49-77), 1993.

<국내 학위논문 및 학술지>

김미영. “ ‘새로운 시적시대’ 의 추구 : 슈만의 음악관.” 음악이론연구 제 11호(2006), 서울대학교 서양음악 연구소, 5-19.

김 인. “하이네의 자유주의적 정치사상 연구 -독일학과에서의 활동을 중심으로-.” 조선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03.

김희열. “독일가곡과 슈만의 문학적 음악세계.” 독일문학 제 109집 (2009), 제주대학교, 161-183.

남미선. “Gustav Mahler의 《뤼케르트의 시에 의한 5개의 가곡 Fünf Lieder Nach Gedichten von Rückert》과 《죽은 아이를 그리는 노래 Kindertotenlieder》 비교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13.

박순희. “Dedication(Widmung), Op.25, No.1을 통해 본 R. Schumann의 음악구조와 이중성에 관한 一考.” 충남대학교 예술문화연구소, 제 13집(2006), 17-22.

안소정. “문학의 음악성과 음악의 문학적성. -슈만의 가곡집 《시인의 사랑》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10.

오숙인. “R. Schumann의 피아노 작품에 나타난 문학적 특징에 관한 연구. -Carnaval, Op.9를 중심으로-”, 경희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11.

이한나. “슈만 《미르테의 꽃(Myrten) Op.25》중 하이네의 시에 의한 예술가곡에 나타난 낭만주의적 기법 고찰.” 단국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15.

전옥길. “Johann Brahms의 《Variations on a Theme by R. Schumann,

Op.9》에 나타나는 Clara Schumann의 《Variations on a Theme by R. Schumann, Op.20》의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15.

정원화. “슈만의 《시인의 사랑》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15.

지형주. “구월의 신부를 위한 노래 <미르텐 Myrten>에 담겨있는 슈만의 낭만성.” 음악이론연구 제 11호(2006), 서울대학교 서양음악연구소, 21-39.

한상희. “하인리히 하이네의 작품에 나타난 망명의식에 관한 고찰.” 성신여자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05.

#### <사전>

Branscombe, Peter and H. Prang and E. Witzig and M. Duttle and F. Golfing and K. Geodeke. “Rückert, Fridrich.” in *The New Grove Dictionary of Music and Musicians*. Vol. 16, edited by Stanley Sadie, London: Macmillan Publishers Limited, 1980, 310-311.

Branscombe, Peter and E. Galley and S. Seifert and F. Wilhelm and E. galley and H. Houben and F. Schnapp and K. Goedeke and R.H. Greinz and A. Bock. “Heine, Heinrich.” in *The New Grove Dictionary of Music and Musicians*. Vol. 8, edited by Stanley Sadie, London: Macmillan Publishers Limited, 1980, 437-438.

# ABSTRACT

Study on Schumann's Collection of Songs  
《Myrten, Op. 25》  
–Mainly on Poems by Rückert and Heine–

Kim I-Seul

Department of Collaborative Piano  
Graduate School of  
Sungshin University

This paper is a research analysis on Robert Schumann's (1810–1856) collection of songs 《Myrten, Op.25》, mainly on poems by Friedrich Rückert (1788–1866) and Heinrich Heine (1797–1856), showing how Schumann expressed the combination of literature and music in his art songs.

In 1840, Schumann selected poems by nine poets and composed the collection of songs, 《Myrten》, a total of twenty six songs, and presented to his lover Clara Josephine Schumann (1819–1896) the night before their wedding.

Schumann used a poem from 「Spring of Love」 (Liebesfrühling) by Rückert written as a gift to his wife for the lyrics of the first

and last songs in his collection of songs 《Myrten》 to dedicate Clara, showing the romantic aspects of Schumann and the poetic and literary meaning. Heine vented emotions of a broken heart in his literary works and Schumann felt a deep sympathy towards the dual aspects displayed in the poems, making Heine's works one of the most greatly extracted works for Schumann's composing.

This paper firstly studied the life and works of Schumann, Rückert and Heine; followed by the background and structure of Schumann's collection of songs 《Myrten》 and a research on the poet. Furthermore the paper looked into Rückert and Heine's poetry, structure, tonality, melody and chord to the poetic lyric, rhythm and the role of the piano accompaniment of each song.

Eight songs from Schumann's collection of songs 《Myrten》 studied in this paper does not sing each line of the poem consistent with the number of bars however, increased or decreased the number of bars to the meaning and emotion of the lines of the poem. Schumann made use the cadence (Urmelody) of German language of the poem when composing and actively expressed the meaning and emotion of the poetic diction and lines in various ways through the tonality and the rhythm of the chord and melody. The piano accompaniment is not simply a support role to the vocal melody but presents the atmosphere of the poem by using various chord progressions, repeated

harmony, arched arpeggio and homophonic accompaniment.

The idea of literature and music becoming one in Schumann's collection of songs 《Myrten》 has great significance in music history and had great influence to the development of German Romantic art song.